朝鮮日報 夕刊
本紙特刊並十二面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十一番地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機構問題責任感에 菱刈長官辭任?
林陸相과의間에諒解이미成立 後任으로南大將推薦

【大連三日發至急報聯合】 菱刈司令官의辭任은 同司令官最近의言動에依하야 決定的이라고 滿鐵及關東廳首腦部는보고잇다 그後任으로는軍事參議官南次郎大將說이有力하다

【大連二日發聯合】 菱刈關東廳長官은今回의在滿機構改革問題에關하야 關東廳長官으로서의責任을 痛感하고드되어關東軍司令官本官은勿論이고 駐在全權大使及關東廳長官의兼任一切를拋棄辭任하려고 決意하야 이미林陸相과의間에諒解가成立되야陸相은 後任에軍事參議官南大將을推薦하는 同時에菱刈長官을軍事參議官에推薦키로되여잇슴으로 結局右東決은時期問題로보고잇다 그리고 이에關하야 滿鐵及關東廳首腦部에서는 菱刈長官의辭任은最近의言動에徵하야 決定的이라고確認하고잇다

菱刈司令官

對滿事務局總裁 武官으로決定
次長은大臣級人物로銓衡 林陸相이承認回答

【東京電話聯合】 在滿機關改革問題에件한 對滿事務局總裁에關하야陸軍에서는 最初總裁에는文官을 次長에는武官으로充當키를 要望하고잇슴에對하야 政府는總裁는武官制, 次長은文官制로할이 適當타고하고잇슴으로 陸軍에서慎重考究한結果 政府의希望대로最初의總裁는武官([illegible]) 次長에는文官을充當함을 承認한다고 一兩日前陸相으로부터 正式內閣書記官長에傳達하엿다 이리하야 政府는不遠間豫算關係에關하야 大藏省에서硏究를거듭한後 正式武官制를決定키로되엿다 따라同改革案은來臨時議會에提案키로되엿다

【東京電話聯合】 對滿事務局總裁는武官으로하고 同次長은文官으로할件에關하여는 政府陸軍間에意見이一致되엿슴으로 政府는總裁가될武官의人選는陸軍에一任하고次長이될文官人選에關하여는 臨時議會에在滿機構案을上程協贊을어든後直時官制를公布하고 總裁以下를任命치안하면안되는必要上벌서 그人選에 着手하엿다 그리하야初代次長이될人物은 될수잇스면 官吏生活의經驗者로滿洲事情에밝고또 滿洲問題에關한認識이깁흔사람을 條件으로人選을行하고잇는데 政府로서는初代次長의 地位를무겁게하기爲하야 될수잇는限大臣級에서 이를求할意向인데 아직具體的決定을보지못하엿다

北鐵讓渡協定은 日滿蘇共同調印

【東京電話聯合】 北鐵讓渡交涉은鐵道附屬設備一切의 讓渡價格一億四千萬圓을 基點으로目下廣田外相斡旋下에 讓渡交涉其他一切具體的細目에對하야折衝을進行中인데 이에關하야 유레니에프大使는 莫斯科政府에請訓中으로 不遠間回訓到着을기대리어 유레니에프大使는廣田外相을訪問키로되엿다 이로因하야 北鐵交涉은實質的으로完了될터로 이에讓渡協定調印케될터인데 右讓渡協定調印形式에關하야 유레니에프大使는 蘇滿兩國의 單獨的調印을 하지안코 讓渡後의 支拂保障으로서 從來로부터 交涉斡旋에努力해온 日本의共同調印을 要請하야 日滿蘇三國의共同調印으로完結식힐 態度를表明하게되模樣이다

急進黨레루氏에 組閣大命이降下
注目되는西班牙政局

【마드리드二日發聯合】 삼파ー氏를首班으로하는 西班牙聯立內閣의總辭職은 依然西班牙共和革命以來의危機에 陷하야 인제西班牙共和國憲兵餘章을그대로承認하든가 或은社會黨산디칼리스트及共產黨等의 極左黨의陣營에降伏하고 푸로레타리아獨裁政治를 甘受할것인가 하는 岐路에서게되엇다 그中間에서 從來議會에서 第一黨이엿슴에不拘하고 靜觀하고잇든 極右派카토리人民農民黨黨首로부레ー쓰氏는 果然자모라大統領에對하야 人民農民黨에의大命降下를要求하엿다그런데大統領자모라氏는 二日急進黨首領레루氏에 後繼內閣組織을依賴하엿다 레루氏는 새로大統領의뜻을바더 農民第一黨카토리農民黨과 協力內閣組織에着手하엿다 大統領이 미리로부레ー쓰氏의 明確한要求에도不拘하고 카토리黨을排하고 特히 레루氏에對하야 大命을降下한것은 左右兩翼抗爭의 尖銳化에鑑하야 中間의急進黨이合法的手段에依하야 漸進的으로對策을 遂行하기를期待하고同黨의 穩健主義에共和國의基礎를 强固히할方針인것으로觀測된다

蘇聯從業員은 全部一齊退職?
北鐵委經後根本方針

【大連二日發聯合】 滿鐵重役會는 二日北鐵讓渡交涉後의經營이 滿鐵에 委任經營될境遇가 將重大先決問題인 人事異動을 非公式으로 協議한結果原則으로蘇聯系從業員은 全部退職식히고 滿洲國人은殘留식힌다고 하더라도 五、六千人의異動은 未免할것으로보아 如左한方針을決定하엿다

一、各首腦部를如何히할가에關하여는速히具體案을作成할事
一、其他의諸計劃은 政府의方針決定을 기대리어緊急重役會議를열고決定할事

루마니아新內閣 타氏에大命再降下

【電通부카레스트(羅馬尼亞)二日發】 昨日總辭職한 羅馬尼亞 [illegible] 二日大命이再降下하야 再次組閣에着手하엿다

蘇機不時着頻繁에 滿洲國蘇聯에抗議

【哈爾賓二日發聯合】 滿洲國外蘇聯軍用機의 不時着에繼續하야 二十六日 午後五時密山縣李樹鎭北方四十粁地點에 스이우크코에飛行隊所屬의 偵察機가機體故障으로 不時着陸하엿다가 翌日午前九時飛去한事實이잇다 右事件에 關連하야 蘇聯政府當局은 빨리搭乘者도보로푸飛行士及 바후레푸操縱士를嚴罰한 旨를通告하고遺憾의意를表하여왓다 右通告에接하고滿洲國 北滿外交代表施履本氏는一日다시、哈爾賓駐箚蘇聯總領事代理 라이뮈드氏와會見하고다음과가튼 二個의抗議를提出하엿다

一、將來不法越境을 嚴禁할것
二、萬一이런 事態가發生할境遇는地方官憲에 申告할事

이에對하야라이뮈드總領事代理는 右要求를 受諾하고關係當局에 嚴重命令을通達할旨를 聲明하엿다

空軍을分離하야 參謀本部서直轄
全戰鬪力包括統一키爲하야 米陸軍省正式發表

【電通華盛頓二日發】 米國陸軍省에서는 各部隊所屬의航空隊를右所管部隊로부터 分離統一식혀새로參謀本部直轄의空軍으로하고저 根本的改編計畫을二日發表하엿다 右新設空軍은이를G、H、Q空軍이라稱하고 陸軍航空隊의全戰鬪努力을 包括統一하야 西로는칼리포니아州로부터 東으로는버지니아州에 일어나는各地의航空隊를攻防모다 一瞬間에總出動식히기를 目的한것으로그總司令部는 버지니아州의란크리ー필드飛行場에 設置키로되엿다이로因하야 命令系統은根本的으로變化하야 航空隊司令포로일少將의 權限은縮少되야從來各地部隊를通하야 傳達되든飛行隊의出動命令은 今後는參謀本部로부터 直接發令되게된것이다 그런데最初의改編案은陸軍機中九百機를 新系統에編入할方針이엿는데 參謀本部의强硬한反對로 今回와가티徹底的改編計畫을實行키로된것이다

大橋次長 東鄕局長과協議

【電通東京電話】 大橋滿洲國外交部次長、星野同財政部總務司長은 二日午後四時半外務省에 東鄕歐亞局長을訪問하고北鐵讓渡交涉의細目的條件에關하야 約二時間동안重要協議를行하엿다

米國의敵은日本!
大航空隊設置力說
五十臺의航空船이면敵을全滅 미첼將軍의氣焰!

【電通華盛頓二日發】 米國의元陸海軍航空本部長미첼將軍은今日聯邦航空委員會에 參考人으로 出席하야 『航空氣는國防의第一要素이다』라는見地에서大航空艦隊의設置, 爆擊機의改良을 主張하야

五十臺의航空船이 잇스면日本을二日만에 形跡도업시全滅식힐것이다

라고極言하야期時가時期이니만큼莫大한 反響을일으켯다 미첼將軍의 陳述要旨는如左하다

國防上國家의 急務는絕大威力을가진 大航空艦隊를即時建設하는것이다、五十臺의航空船은 二日間에日本을擊攻하야 形跡도업시 이를全滅케할수가잇다 아크론號의 遭難以來世上에航空船의 戰時의必要性을云云하는이가잇스나 아크론號의 遭難은全然操縱의拙劣에依함으로서 航空船그것의缺陷에依함이아니다 또飛行機도改良을하지안흐면 안된다 米國에對하야 가장危險한敵은 日本인즉우리가 飛行機를設計할時는 恰似히英國이歐洲攻擊을 目標로하고飛行機를製作하듯이 日本을攻擊할수잇슬것을 念頭에두지안흐면안된다 딸아 米國의飛行機는 六千哩乃至八千哩의航續力을갓는것이 必要條件이다 要컨대空軍은國防의第一要素로서 敵에의 中樞를有效히 突擊할수 잇는것은空軍인즉 余는當局에對하야空軍의大擴張을 行할것을勸告한다 그리고平時에이를하지안흐면 戰時에米國艦隊는그機能을 發揮할수업슬것이다 航空術의 發達한今日에는大洋은國防上英國海峽보다도依賴할수업는것이다 여서는안된다 國民은조곰도念慮할必要가업다

防空兵器發達로 恐怖는全然無用
海軍當局서意見表明

【電通東京電話】 米國前陸海軍航空本部長미첼中將이 聯邦航空委員會에서大航空艦隊의設置를强調한데對하야 日本海軍當局은 公式의意見發表를避하고잇는데 大體로다음과가튼見解를가지고잇다

미첼將軍의論旨는自國防空의見地에基한것이아니고 어데까지、米國侵略主義로저하는進攻的作戰上의 見地에나서온 挑撥的言動이다 即平和關係에잇는友邦과의 戰爭을想定하면서 이를屈服식힐手段을云謂함은 퍽不謹慎한態度이다 特히不遠間再開될 倫敦海軍會議豫備交涉을 압해두고 이가튼挑撥性을띈言辭가 空軍萬能主義者로서 有名한 米國將軍에依하야 論議된것은 世界平和를爲하야 遺憾千萬이다 五十臺의飛行船云云하나 겨우二臺의大型飛行船밧게업고 그리고飛行船建造를中止한米國이 어떠케五十臺의 飛行船을 지을것인가 日進月步의科學은 防禦的兵器의 進步에도 至大한影響을줄것인즉 事實上根據가업는 이가튼說은 [illegible]

中國對外貿易 米國이第一位 日本은第二位

【上海二日發聯合】 國際貿易局發表에依하면 今年一月부터八月까지의 中國對外貿易總額은 十億八千一百六十萬七千元으로 輸入이 七億二千四百九萬一千元 輸出이 三億五千七百五十一萬六千元이다 이를國別的으로보면 米國이二億六千六百四十五萬四千元으로第一位, 日本은一億三千六百九十九萬元으로、第二位이다 第三位는 英國의 一億一千五百四萬五千元이며 第三位以下는 香港獨逸、印度의順序이다

山本(悌)氏强硬히 玉碎主義를進言

【電通東京電話】 近近開催할臨時議會에서 政友會가如何한態度로서臨할는지 政府는勿論政界各方面에서 注目하고잇는데 黨內强硬派를代表하는 山本悌二郞氏는 二日鈴木總裁와會見하고 總裁의所信을質問한後 山本氏는 米穀、蠶絲等政府에서 從來에取하여온農村對策은 極히姑息的의것으로 一時를糊塗하는데不過한것이다今回旱害 風水害 冷害等으로 農村의窮乏은 極度에達하여잇는바 政府는 速히積極的救濟策을 講究할것이다 그런데政府는 低利資金融通으로 糊塗策을 講究하려하는傾向이잇는것은 자미업다 單純히 農村對策에끈치지안코 在滿機構改革問題、財政金融問題等하나도 滿足히解決이업다 政友會로서는 鈴木의主義主張에基하야臨時議會에서는 徹底的政府與黨의責任을 糾彈할必要가잇슴으로 어데까지强硬한態度로서 政府의政策을檢討하고 容認치안흘境遇에는 玉碎할覺悟로서 臨할터이라는强硬한意見을 進言하엿다

아州日農排斥에 米政府保護確保
國務省의回答內容

【東京電話聯合】 北米아리조나州의 日本人農民排斥運動에 關하야二日齋井、駐米代理大使로부터、外務省에의着電에依하면 同代理大使는去二十六日公文書로써 日本農民의生命財產의 保護를거듭 米政府에要求한데對하야 米政府는二十九日附로 同代理大使에게今月一日如左히回答하여왓다 即아리조나州農民事件에 關하여는 去八月二十日來該州地方官憲과 [illegible]를喚起하얏든바 同官憲은日本人의適法的權益을 保護키爲하야 適當한手段을講究한다고하엿는데 今回再次右同樣의 要求를 貴代理大使로부터 接受하엿다 [illegible] 事件에關하야 極力努力할것으로信賴한다 米政府는 아리조나州在留 日本人에關하야 現存止하고 또今後繼續生活할지도 알수업는困難에對하여는 適法的手段에依하야 問題의解決을圖할것을 이에 거듭聲明한다 右報告에接하고 外務當局은地方問題로 解決하려는 態度를持續하고잇스나 兩國의推移如何에依하여는 다시中央의外交交涉에 移讓하야 適切한手段方法으로써 善處코저 目下慎重審議中이다

朝鮮語法의術語論
순조선말로쓰자한지三十年
延專敎授 崔鉉培 【七】

둘재로 나와 어떠한 갈말이 저앞사람의 그것과 그뜻이 거의 같은 것 가운데에서도 그 갈말이 조곰식 다른 것이 없지 아니하다 이를려면

앞사람의것	내가쓰는것
임	이름씨
움	움즉씨
엇	어떻씨
늑	느낌씨
억	어찌씨

언 어떤씨와 같은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쓰지 아니하였음은 될수있는대로 갈말을 音節의 말과 近似하게 하야서 배운는 사람으로 하여곰 깨치게 쉽게 하고저 함에 있다 다시말하면 앞사람의 갈말은 꼭 한 音節로써만 지으려고 해서 그 用語를 不自然스럽게 簡約하였기 때문에 얼른 읽어 깨치기 어려움뿐아니라、무슨 이름이든지 한 音節로 된 것보다 둘이나 세音節로 되는 조선말의 慣例에 어글어지며、또 소리내어 불러도 서로 똑똑이 잘되지아니하는 때문이다。 決코 나는 달리함을 좋아하는者가아니다。다만 더 完備하게하며 平易하게하려고 힘쓰는者일 따름이다。

七

나는 이것으로 조선말본의 갈말에 關한 問題를 論하야 조선말본의 갈말은 될수있는대로 순 조선말로써 지어야만 할 것을 主張하고、다시 나아가아 우리말본의 갈말을 紹介하고、따라 그것에 對한 의심을 풀었다。

그렇지마는 나는 決코 漢字語를 全然 排斥하자는 主張을 하는 者는 아니다。 다만 같은 값이면 순 조선말로 할 것이요、순 조선말을 사랑할 것이요、순 조선말의 發達을 꾀할 것이요、순 조선말로 된 科學의 成立을 힘쓸 것이요、다른 學問은 몰아두고라도 적어도 조선말만은 될수있는대로 순조선말로써 풀이 하자는 것이다。

옛날에 世宗大王께서 조선말을 表記토할 訓民正音(한글)을 지으실 적에 [illegible] 人의 諺文 漢文이 있는데、무슨 까닭으로 鄙俗한 글자를 새로 짓는가 하야 熱烈히 反對하던 臣下가 많았으며、甲午年 以後에 兪吉濬先生이「西遊見聞」의 大著를 發表하실새 처음으로써 漢文交用體를 썼음에 對하야 當時의 有識者(?)들의 嘲笑를 받았음을 우리는 안다。 한 걸음 나아가 周時經先生이 모든 글을 순 조선말로 하자는 외침을 한지가 三十年이었마는、이 외침이 아즉도 조선사람의 「識者」의 耳目에는 서투른 囫圇한 소리로만 들리는것 같으니、딱갑한 것은 조선사람의 自覺의 더딤인저!

(一九三四·九·二〇)

日比關稅引上案
比島產業保護에置重

【電通馬尼剌二日發】 日比關稅引上法案은 그內容一切가秘密에 부처잇스나 比島議會方面의 意向을綜合하면 同案은傳하는바와가튼 日本品驅逐對米特惠待遇에 重點을 두는것이아니고 오히려 比律賓의產物保護를 主眼으로한것으로보아對米特惠待遇問題에 關하여는比律賓의 實情을調査키爲하야米國委員이來十二月馬尼剌에到着됨을 기대리여折衝할模樣이다

關稅改正은至難 머피比總督明聲

【馬尼剌一日發聯合】 對米關稅改正에關한比律賓關稅法案은九月二十六日會議를 通過한以來引上率에關하야種種臆測이傳하는데 이에關하야 一日머피總督은 一、二日中에政府의關稅政策에 關한確固한聲明을할旨를發表하엿다 最近比島輿論은 來十一月八日에終結하는 議會會期中에 關稅改正法案을 上程하는데反對하는者가만하 이는目前에切迫된共和政府의 完了를기대리여 새로當局者에依하야 處分할것이라는 强硬한反對論이일어나서 同法案의上程延期運動은 漸次强硬化되고잇다 萬若이運動이成功하면 關稅改正은今月中에實現되기는不可能할것으로보인다

伊太利政府 絹織物輸入禁止

【電通羅馬二日發】 伊政府는 二日公式으로 布令하야絹織物輸入을 禁止하엿다

福建共產軍이 西南과諒解成立
黃祺翔氏의仲介로

【福州二日發聯合】 中國側의消息에依하면 福建人民政府首班으로서 活躍한黃祺翔氏는 最近來消息이杜絕되엿섯는데 最近廣東에나타나서 福建省의共產軍方志敏、劉炳輝와 西南側과의斡旋에奔走한結果 「共產軍은 西南側을侵犯치안코 또西南側은 方志敏等의後方을侵犯치안을것과 共產軍의浙江에前進함을기대리어 西南獨立을宣言할것」의 諒解가成立되엿다고 傳한다

人事·集會

◀周承萬氏(富田合名會社支配人) 三日夜特急으로阪神地方出張

八面鋒

「佛國은 民主主義의 保壘로 어대까지 獨裁에反對한다」고 外相두메륵氏가聲明。
◇ 內으로、黑色、北으로 褐色의 두獨裁를에끼어 잘보라도버티어보는것이 壯하다할지。
◇ 授業料 못내서 [illegible] 앗고 逐出!
◇ 돈업시는 못살 세상이라는 實地敎育으로는 效果的!
◇ 上海山東方面의 在外同胞가 續續歸還한다고。
◇ 錦衣還鄕은 할망정 살수업서 돌아온다하니、딱한事情 가아닌가。
◇ 三南水災로 滿洲가는同胞와 비겨볼때에 가고옴이 다를망정 가슴속은하나일세。

宮越氏殺害事件 無事解決

【北平二日發聯合】 馬蘭峪駐屯部隊의御用商人宮越與三郞氏殺害事件에關하야 河北省政府首席于學忠氏는 二日에

一、責任者處斷
一、賠償要求
一、將來保障

其他五個條의 條件을全部受諾할旨를回答하여온結果 그推移가憂慮되든 同事件도無事解決되엿다

東京市電爭議 調停遲遲不捗
市의無理를內務省認定

【東京電話聯合】 東京市電爭議調停委員會는 調停期間五日을남겨슴뿐임에不拘하고 雙方의態度가强硬하야 依然進展되지안하는데 內務當局에서는萬一委員會가決裂되야 再罷業斷行等의事態가 惹起될境遇는治安上重大問題일가잇슴뿐만아니라 市當局側의整理案은 社會政策的、勞働行政的見地로보아 妥當치못한點이잇슴으로 어데까지든지市側의反省讓步及從業員側의 自重을希望하야 調停案作成에萬全의努力을다할方針이나市側의無理한主張에依하야再次最惡의事態에陷入하게되면勞働爭議調停法第十七條에依하야 委員會의內容經過를一切社會에公表하야 公正한輿論의批判에 맥기는同時에 市의整理案實行財源에關한 起債申請에對하여는 그整理方針及財政政策을 容認할수업다는 理由下에 斷乎不許可하기로最後의決定을보앗다

號外發行

今日 朝鮮米第一回收穫豫想發表로 號外를發行하얏습니다

十月四日낮부터 今秋劃期的特別興行
特別料金 階上大人七十錢小人五十錢 階下大人四十錢小人三十錢(日曜日祭日은三回興行)
파라마운트社超傑作(日本版)
名匠 케스리·라글스氏監督
名畵 보레로 全拾卷
名優조지·라푸트氏主演全篇을通하야名曲과舞踏! 熱과힘의神秘的魔力! 보레로! 조지·라푸트의得意의땐스! 가슴이맥키고숨이막힐情熱을자아내는名曲보레로!! 今秋씨-슨의最大센세이슌!! 映寫中間에 朝鮮舞踊界의權威 金東主氏名特別出演 파-트나 女舞子 ///보레로의춤 페살·스테지·쇼-// 件奏포리도루·레코-드
파라마운트社超特作(日本版) 아레키·산다-蓄氏監督
"애기일흔어머니" 坊やが盜まれた 全九卷
婦人도로테아·비-크孃主演
여러분의귀여운애기를萬若에 도적맞엇다면-여러분은엇지하시겟습니까!-도로테아비-크의至藝 本年度最大스릴!!
寺洞 光三六 朝鮮劇場

十月三日브터超特別大興行!
M·G·M·超大作全發聲努力日本版
世界選手들總出演한空前의壯版
巨匠W·S·반다이크氏一大熱血傑作篇
世界拳鬪界三巨人出場
世界拳鬪王 全十一卷
막스·뻬-야-氏 뿌리모·카르네라氏 작크·댐부시-氏 마나·로이孃 主演
骨鳴肉躍! 뻬야對카르네라의 虎搏十回戰! 마대이손스크에아에서擧行되는兩雄의世界拳鬪選手權爭奪戰에압서與幕에飛火的凄壯狀! 世界拳鬪界三巨人出場! 시랑도잇고래뷰도잇다映畫팬이나拳鬪選手팬諸氏의斷然코안니보시지못할熱狂興奮의傑篇
大秦토키映畫社超大作全發聲映畫
爆笑王킹萬歲 全六卷
主演 永田킹氏잇스에로子
日本最初의超던센스토-키映畫유社獨特全篇驚異冒險大連續篇
猛獸王國 全二四卷中第二回六卷上映
快漢룸데이리-氏大飛躍!
貫鐵洞 光三九五 優美舘

各種信託 迅速有利 低利貸出
朝鮮信託株式會社 社長 谷多喜磨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十九番地
支店所在地 群山、釜山、木浦 (營業案內贈呈)

漁具
極上麻絲製 四分目二尋 十圓
投網 五分目二尋 八圓
鳥捕網長三間幅六尺 三圓
極上等絹絲製各種
漁釣具卸商 秋岡商會
京城明治町一丁目派出所前 電話本局四三九〇番 振替京城一二一五六番
定價表進呈

外科 X光線
醫學博士 鄭求忠 (入院室完備)
京城鍾路三丁目十六 電話光化門六八五番

京城 金 金銀地金分析賣買 合資會社 杉山商會
高價
京城明治町 合資會社 杉山商會 電話本局七四番

染料 工業藥品 卸商
弊店은 昨年末에 左記出張所를 新設하고 地方特約店을 大募集하오니 一次照會하야주시기를 바라나이다
申込次第樣本型錄進呈
登錄商標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株式會社 桂屋商店 朝鮮出張所
(電話長本局二五五六番 振替口座京城三五九六番)
本社 東京 出張所 大阪、福岡

가난뱅이들울리는 천정모르는쌀갑

오늘도백미한섬오십전폭등

내릴눈치는안보인다

오르는것은 쌀갑 떠러지는것은 비행기라는말이 류행한 시절도 잇섯거니와 요지음의쌀갑시야말로 다시표현하기쫌되여 오늘(삼일)도 백미한섬에 오십전이 또올라 이십륙원 오십전―오동한가마에 십삼원 이십오전이다 쌀갑시 이러케오르니 오르는쌀갑으로 장사가남어 조아할사람도잇겟지만 도회지의 애꾸진세민들은 올라가는쌀갑을 처어다보며 한숨만내쉬일따름이다 그려라고해서 지금이러케 오르는쌀갑시 농촌농민에게 리익이되느냐하면 그러치도아니하다 농민들도 지금은 쌀을사서먹는터이요 도쌀는 못사먹는다고해도 쌀갑시 오르는데따러 좁쌀, 외미도 다오르니까 여간하라겨이 아니다

◇―◇

금년에 쌀갑시 이러케오르기는 지난칠월 남조선지방 수해때부터다 수해바로이전인 칠월이십일의쌀갑은 이십사원 이엇섯다 그러든것이 수해가이러나자 동이십이일에 이십사원오십전 이십오일에 이십오원이십전 이십칠일에 이십오원오십전… 이러케 올라온것이 필경이십륙원오십전까지 올랏나

◇―◇

오늘 금년도조선미수확 제일회예상이 발표된것을 보면 일천륙백칠십만석인데 평년작에 비하야 삼십일만석이 늘고 작년에 비하여 일백사십팔만석이줄엇다 이것이 평년작보다 늘엇고 작년보다줄엇스니 그러면압흐로 오르겟느냐 그러찬코내리겟느냐하는 예상도 어려운일이나 좌우간 일금쟁이 로동자, 이지안흐니 좁처럼 내릴재료는보이지안흐니 농촌세민들 부어경제는 공황을 이르키고잇슬뿐이다

三南水災救濟爲해 千四百圓을醵金

這間救濟會組織코活動結果

東京在留兄弟壯擧

동경에잇는 동포들이 삼남수재를 구제하기위하야 구제회를 조직하고 여러가지로 활동중이라함은 이미누차 보도하얏거니와 동경긔독교청년회 주재목사 김수철(金洙喆)씨와홍선(洪宣)씨는 구제회를대표하야 삼일본사를방문하고 다음과가티 말하얏다

이번수재를위하야 귀사를위시하야 조선안 각사회에서만히 노력한것을 감사합니다 동경에잇는 우리들도 이불나운소식을듯고 곳수재회를 조직하여가지고 활동한결과 다행이 일천사백원가량의 돈이모혓습니다 이돈이 비록만치는못하나 동경에서는 처음되는일이오 개중에는 고학생들의 피땀으로된 끔직한 열성도석기어잇습니다 일간 동경에서 현금을 수합하여가지고 부치어올것이니가 그때에는 귀사―와 또다른곳에 의뢰하야적당히 구제하도록 하겟습니다

四年만에開會된 第二回監理會總會

牧師、信徒代表百餘名參集

嚴肅莊重裡에開會

조선기독교감리회제이회총회는 예정과가티 오전아홉시반 각지의 목사, 평신도대표로 백명이 시외행동 협성신학교(協成神學校)강당에 모혀총리사 량주삼씨사회하에 총회가열니엿다 미감리교회 동양감독 웰취씨도출석하고 방청자도다수히 출석하야성황으로 개회하얏는데 벽두 총회준비 위원을각부로 나누어 선정하고 오전열시 오십분에사 변동안 조선감리교회를 통할한 총리사의 강설도사십 페이지나 되는긴원문의랑독이잇섯다 이강설은교회의모든부문을그동안의 조직에의하야시험한결과세세한데까지에 비판을가하야 다시개정 참고의견까지첨부 한것으로 일반회원들 긴장중에 경청하게하얏다 이강설을 동하야보면그후입주일간에 다른회원의 건의와 아울너이교회에는 이총회를 기하야 상당한조직의개정 밋의견이진술될것으로 추측된다 모든의견은 각부위원에 위임하야 건의하기로하고 오후열두시 이십분산회하얏나 (사진은 총회회장)

大邱出生申載佑君 鄕土訪問飛行

萬端準備를進行中

말은조선의여기는공중의『정복』에도 끈어잔코 패친다 경북대구수정(大邱壽町)칠십번지신재우(申載佑)(二三)군은년전에동경에건너가서법정대학(法政大學)에재학중이든바 중도에뜻을밧구어천엽현 제일항공 학교(千葉縣第一航空學校)에입학하여 이년반동안 항공술을 전공하고 금년칠월 동교를졸업한후 이등비행사의 면장을마터가지고 십일월중에는 향토방문비행 계획을세우고방금준비를진행중이다

貴鑛續出하는 朝鮮의地下

천왈드鑛을發見

지난해『리숄』운모(雲母)이발견으로 세상을놀내게한 충북에서 이번에는『리숄』을함유한천왈드광이발견되야 조선이귀광(貴鑛)산지로서 세계적 명성을 떨치게되얏다 지난십칠일 전번『리숄』운모가발견된충북단양군 단양면(丹陽郡丹陽面)의서편으로 약백리가량되는산중인 제천군한수면(堤川郡寒水面)의모광산광부가 흑록색운모가티 생긴광석을 발견하여가지고 충독부광산과지하(志賀)기사에게감정을청하엿다 동기사는 얼핏보기에 흑운모광과가트나 자세히살펴보는동안에 세계에서도 진귀한『천왈드』상인것이 판명되엿다

滿朔된愛妻爲해 굶다못해도적질

시내각백화점을전문으로

그가이노릇한까닭

나이어린안해가임신중에잇는데 먹고살것이 업서생각끄테 도적질을하다가 필경끄락가 잡아경찰에잡힌 사나이가잇다 시외신당리(新堂里)삼백사십팔번지 유귀복(兪貴福)(二六)은어일시내본정동 삼중정(三中井) 백화점에서양복 한벌을홈치다가 소관본정서의 오(吳)형사의 손에체포되어 방금취조를 맛는중인데 그의집에는 방금임신 팔개월의 열여덟살먹은 어린안해가 잇고 직업은 구하여도어들수가 업서 두내외가 굶어죽게되자 생각다못하야 지난칠월부터정자옥(丁字屋) 삼월(三越)평전(平田)삼중정(三中井)등백화점으로도라다니며 양복, 양복천의복등을전문으로 훔처전당국에 잡혀서순전히생활비에썻는데 금액은략이백원에달한다고한다

惠山線列車顚覆現場(朝刊記事參照)

飮食店에서 飮毒코自殺

【永登浦支局電話】 삼십일밤열한시 오십오분에 로량진인도교밋 장흥여(張興汝)의음식점에서 동대문밖안암리(安岩里)개운사(開運寺)중려 리호암(李浩岩)의양자 리홍석(李興石)(二三)은 쥐잡는약을 먹고자살을해버렷다

그는 그날오전열시부터 오후네시까지 그음식점에서 한거름에 서울서 올친구를기다리겟다하고서 그동안잡간 자겟노라하고 작부(酌婦)를바그로 내여보냇는데 오후여섯시가 되어도일어나지안흠으로 그집주인이 작부를 시켜서그를 깨워일으키려하엿스나 영영잡이 드러버렷다 그래서 하도 수상스러워서그의 벼개미를 들처보즉 쥐잡는약을 너엇든 빈갑이잇섯다 영등포경찰서에서는 열한시 오십오분에 공의(公醫)를 데리고가서진찰하엿나 확실히 자살한것으로 판명되엿다

그는 경성전기회사 차장으로다니다가 얼개월전에 그만두엇는데 죽은원인은 그외거모와볼 돗이 맞지안흠으로도 세상을비관하고 그만죽어버린것인듯 하다한다

人質生徒百五十名 士兵을追擊奪還

大房身에서交戰三時間後

安東守備隊出動으로

【安東三日發聯合】 이일봉황성(鳳凰城)현립소학교를습격하야아동 백여명을인질로 데려가든목왕대고랑(王大姑郞)의일당한삼십명토병을 추격한 안동현수비대목야(牧野)소위이하○○명은 이일오후두시 고려문(高麗門)동북오키로되는 안동파봉성(鳳城)현경대방신(大房身)에서 전기토병단을맛나 안동만주국경찰대와협력하야 세시간동안 교전한결과 생도백오십명을 빼아서가지고 도라왓는데 한편으로는그들을추격중이라고한다

處女피는手段인 文化住宅피아노

시골처녀를 서울로 꾀여다팔아먹을려하든 목포북교동(木浦北橋洞)인쇄직공 전과사범정규철(丁奎喆)(三〇)은 이일오후 경성지방법원에서 영리유괴죄(營利誘拐罪)로 민(閔)검사로 부터 징역삼년의 구형을바덧다

그는지난팔월 칠일 밤에목포죽교동 (竹橋洞) 이백구십사번지리모 (李某)의 손녀 리금순(李錦順=假名)(一八)이라는처녀가 목간에갓다가 도라가는길에 어뎌 불량청년에게 쫏겨서피고정규철의집에 피란하러 드러갓든것을 인연을삼아 그는그뒤처녀를 수차나꾀여내서 서로관게를하고 자기고향해남(海南)에는 수만원재산이잇고 또한모전문학교를 졸업하엿스며 서울가서모신탁회사(信託會社)에취직하게되는데 가티서울로 가서공회당에서 결혼식하고 문화주택에서 살게되고음악학교에 보내주마고 달콤한말로 꾀여서울로올라와서는 려관에서 하로이틀밤 류숙한뒤에 다시만주에가서취직하야 이천원가량 버리서울터이니그동안카페에드러가서 녀급노릇을 하고잇스라하고 전차금 이백원을 밧고평양모『카페』로넘겨치송하려하다가 그만탄로된것이라한다 판결은오는구일이다

金風에불려 處女의失踪

가을바람도처녀를꾀여내다 시내창신동 (昌信洞) 오백팔십삼번지이십칠호 김기홍(金基洪)의 집에류하는 원세영(元世榮)이라는마나님은 딸을놈어느놈어 꾀여갓스니 차저주시요하고 시내각경찰서에 수색원을 제출하엿다 그딸은김봉녀(金鳳女)(二〇)라는 시내 모병원의간호부이매작년에그시골인 공주로부터 서울로올나와 병원에간호부로 취직하엿는바 그동안에인이 생겻는지어느 남자가자조 차저왓고 그것을볼때마다 모친원세영은 몹시나물혀오든터인데 엄임아치병원에 간다고 집을나간채우금도라오지아니한다는것이다

버리하러서울간 내딸차저주오!

의지할곳업는 원씨부모를 버리고서 서울가서돈벌어 보내다든 따님은 어데로갓느뇨? 도라오지 안는딸을 차저달라고 경찰에눈물흘리며 호소해온 늙은아버지가잇다

일일오전 열한시경에 종로서에는 공주읍상반정(公州邑常盤町)삼번지 원세만(元世萬)(五〇)이라는백발로인이마데에와지하야겨우차저와서는 일년전에 집을떠난무남독녀 외딸을 차저달라는눈물의 수사원을 제출한일이잇다

그의딸 김봉녀(金鳳女)(三〇)는 고향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한후 작년 팔월에 돈버리할곳을 차저서상경하야 간호부노릇을 한다고 두어번편지가잇드니 그뒤로는지금까지 소식이 돈절이라는것이다

의지할곳업는 원세만 로부부는 할일업시 딸을차저 역시상경하엿스나 딸의소식은 드를길이업서방금창신동(昌信洞)오백팔십番)의집에서 일을해주고목을부치고잇스면서 그리운딸의 소식을어데나저때나하고방나조로가다리고잇다는것이다

龍井暴動計畫한 共黨十數名被檢

中共東滿特別委員韓某等

赤色文書도多數押收

【龍井間島三日發】 연길현오지왕우구(延吉縣奧地王隅溝)에근거둔 공산당간부동은 최근룡정(龍井)시내에 잠입하야 대담하게도 폭동계획을 획책하고잇는것을 총령사관 경찰서에서탐지하고 헌병대와협력하야 이일새벽부터 행동을개시하야 시내신촌(新村)에서 중국공산당동만특별위원한모(韓某)와 김모(金某)외십여명을 검거하는동시에 적색문서다수를 압수하고목하엄중히 취조를 하고잇다한다

男便은縊首 안해는自刎

싸움끄테버러진悲劇

【大邱支局特電】 대구남성정(南城町)일 백십오번지 리성수(李成壽)(二四)와 그안해 안중렬(安重烈)(二三)은이일밤언쟁을한끄테 안해가 출타하엿다가 그날편리아침 일곱시에도더와 그남편리성수가 방대들보에 목을매어자살한것을 발견하엿다 그는놀레는한편 남편이그와가치 죽엇스니 살어잇슬수가 업다하야식칼로목을찔른것이 죽지는 아니하고이웃사람의구조로방금대구도립의원에 입원치료중인데 생명이위독하다한다 그들이그와가치 싸우고자살까지하게된동기는남자는 어느일본인 양조소의배달로잇고 안해는술을파는 영업을하여오든바 늘생활이 안정치못하고 따러서 가정의불화가끗칠날이 업섯는데 그전날밤에도아주사소한일로 언쟁을 한것밧게는 별로다른원인이 업다고한다

六十老人飮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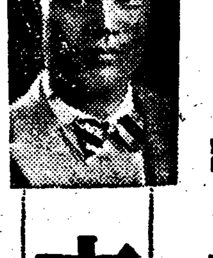
시외공덕리(孔德里)십일번지륙십칠호 박홍주(朴洪柱)의 부친박한순(朴漢順)(六〇)은이일오후열한시 자살을목적으로 쥐잡는약을먹고 고민하는것을 집안사람이 발견하고 즉시적십자병원(赤十字病院)으로데려다가응급 치료를하엿스나 박금생명이 위독하다고하며 원인은생활난인 듯하다고한다

天氣豫報

晴一時曇

高氣壓은北支那로부터 日本東北地方에 떠지여잇고 低氣壓은 樺太의南方에잇고 颱風은琉球의遠方東方에잇다 朝鮮一般은 晴曇不定이고 氣溫은昨日보다漸漸降下하얏다 明日도晴曇不定이다

最高 一五度七
最低 十度一
正午 十六度七



玄濟明獨唱會

時日 十月五日下午八時 場所 公會堂

入場料 白券 一圓 靑券 五十錢 學生券 三十錢

主催 延禧專門校 後援 朝鮮日報社

運動競技

開城과鷄林 卓球戰

六日YMCA서

우리卓球界의雙璧 開城의中央俱樂部對京城의 鷄林俱樂部第二回定期卓球對抗戰은 YMCA後援下에 來六日(土)午後四時부터 鐘路靑年會舘에서擧行할터이라는데 第一回에는鷄林軍이開城에 遠征하야 接戰끄테得勝한터인지라 開城軍으로서는 雪辱의好機를마저 當日의熱戰이 볼만할것으로 期待된다

【開城中央俱樂部軍】 ▲監督 李順佑 文錫璜 崔根善 具滋鳳 崔根恒 洪性佑

【京城鷄林俱樂部軍】 ▲監督 趙炳學 朴鎔德 李時鎬 金相赫 徐聖福 洪鐘九

女子卓球戰 同德優勝

對淑明決勝

지난一日에行한 朝新主催의女子올림픽卓球戰에는 新界의극닭호ー스同德女高普軍이 接戰의成績으로 快히優勝하엿는데이날의戰績은如左

◇對校競技
同德女高普3―2京城女高普
淑明女高普4―1京城第一高女

【決勝戰】
【同德】4―1【淑明】
姜彭玉3―1韓慶熙
車貞子0―3杏己相
尹貞姬3―1廿金子
東德梓3―2安明植
金光姬…… 黃德純

◇個人競技
【準決勝戰】
尹貞姬(同德)3―2廿金子(淑)
姜彭玉(同德)3―2張 (第二)
【決勝戰】
◎尹貞姬…棄…姜彭玉

日本關東學生陸上 早大連十年優勝

南, 李兩君奮鬪

지난二十九, 三十兩日間 東京에서열린 第十六回關東學生陸上競技選手權大會는 早大一〇六點對文理大一〇二點의接戰끄테 早大가連十年優勝하엿스며 同大會一萬米決勝에 南昇龍(明大)君은 三二分一七秒도 二着되고 李龜河(專修)君은 五着으로入賞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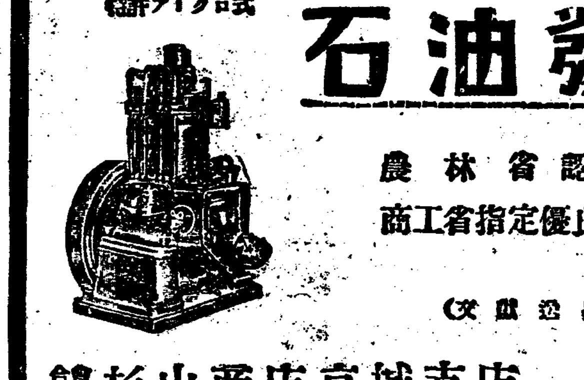
世界野球爭霸戰

『센트루이』와『타이가』 今日부터對戰

【뉴욕發聯合】 米國職業野球『내쇼날•리―그』의霸者『센트루이스•카―디날스』軍과『아메리칸•리―그』의優勝者『타이가―스』軍과의 世界野球爭霸戰은 今三日부터디트로이드市에서 擧行하기로 되엿는데 當地에서 第三回戰을 行한後『센트루이스』市에서도 行할터인바 近來에드물게크로스•께임을演할것으로 豫想된다

市內各普校運動會

▲貞洞普通學校 運動會는來五日午前九時부터長武臺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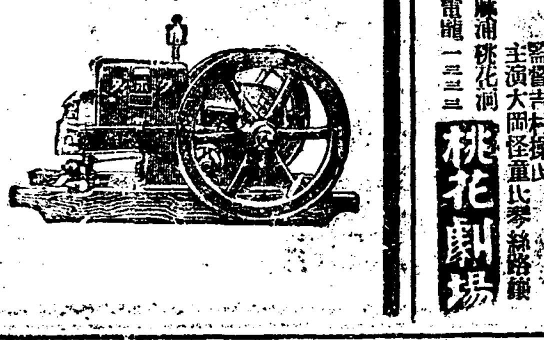


クボタの ディーゼル機関 石油發動機

伊佛獨米英特許 クロフア式

農林省認定品
商工省指定優良國産品

(型錄送呈)



杉山商店京城支店
京城府南大門通五丁目二五
電話本局長 882番 4784番
本店 大阪市西區立賣堀南通町二丁目 電話新町 901.902.903.904.3127
支店 東京•名古屋•神戸•大連•奉天•臺北 札幌•八幡

開運의好機는只今!

名觀相家

聖龍先生의判斷은如神

京城相學院長 聖龍先生은科學的관상학의大家로서만흔名士들의관상을보고大好評을방은 관상계의 권위자입니다 前途方針에對하야 헤매는분、適業을擇하고 大成功을바라는분、幸福한結婚을바라는분、夫婦間에煩悶하는분、株式、期米、鑛山業으로 큰利益을보나、損害를당하나 平生의 길흉운수、其他訴訟의勝敗、明暗을確實、親切丁寧히 判斷하며 開運成功의길을 보여주시는 聖龍先生 今時에 觀相을보시고 운수가 트이시는 實로보람잇고 깁잇는 判斷입니다

【성룡선생】

◎京城太平通二丁目三〇六(南大門과大漢門의中間電車通り) 料金은普通觀相壹圓이오

京城相學院

◎地方에게신분은생년월일과 要件을자세히적으시고 料金을付送하시면곳자세히회답해드립니다 (사진이잇스면더욱명확함)

十月二日브터 大公開 午後七時半始映 料金 階上十五錢 階下十錢均一

◇笑劇 유니버살社特作映畫 南京小僧寶篇 全六卷 監督 찰리암 젠스크라프트 主演 크레드리아―온氏

◇日本活劇 河合社特作映畫 大入大福記 全七卷 監督 吉村操氏 主演 片岡紋四郎 大岡怪童氏

◇現代劇 河合社超特作映畫 戀愛悲活劇 心燃하는女性 全七卷 監督 吉村操氏 主演 大岡怪童氏 夢路綾

麻浦桃花洞 電龍 一三三 桃花劇場

外科 皮膚科 花柳病科 鄭在雄醫院 京城府清進洞一五一 電話光化門一三九二

獨逸製 世昌票지봉틀침針 品質優良•價格低廉 發賣元 京城 福ミシン店

注文殺到 殘册僅少

金容珪著

鑛山發見及經營法

富源開發의寶書!

以文堂 京城寬勳洞一三〇 振替(京)一〇二七五番 電(光)一四八四番

都賣散賣

鑛山用藥品 工業用藥品 衛生材料品 醫療器械 處方調劑 醫藥品 有名賣藥

京城府鐘路四丁目 電車交叉点

山崎仁壽堂

電光化門二五六番 振替京城八〇八番

開舘一週年記念超特別大興行

名畫と舞踏

ボレロ

パ社超特作日本版
ヂョージ・ラフト主演
キャロル・ロムバード サリー・ランド助演

ステージ・ショオ ボレロを踊る!!
日本舞踏教師協會教師 ダンゴ界の巨星
市村讓治氏 槻尾たか子孃 來演

十月四日より

浪花館

향기

朝鮮藝苑에 檄함!

藝術各部門에 주고밧는글 (22)

＝文人으로서＝ 讒語아닌讒語

李軒求

醫師에게서 救援맛을 수업다는 最後의宣言을밧은 愛子에계對하야 母性愛의偉大한後光이 만일 甦生이라는奇蹟을出現식혓다면 우리는 이事實압해서 무엇을 생각해야할까? 또 무엇을 느껴야할것인가? 우리는 醫師의診斷이 그릇되엿슴을 非難할것인가? 그러치안호면 그어떤 心靈的超人間의 殉誠에서 一의

驚 異과偉大를 發見하엿슴에 놀내야 할것인가?

사람에게 最後의宣言과가티 무서운것이업고 最後의瞬間과가티 敬虔한것이 업는것이다 이社會에서 그어떤무서운 道德的法律的罪惡을 犯한그者에게도 그가 殞命하는 그最後의瞬間 그最後의刹那에잇서서는 實로 그는 그누구보담도 더嚴肅하고 누구보담도 더人間的 純情의微笑와 무서운懺悔속에 눈물지을것이다

그러나 사람에게 누구나다 이最後의 瞬間과가튼 超人間的非常的心神의 恒常時所持를 期待할수는 업는것이다 우리가

朝 鮮의文學을云爲하고朝鮮의藝術을 云爲할때 이러한 커다란感激과 純情의 發露될그어떤 最後의瞬間을未來에豫期하는바 가슴을조여드는感壓感을 때로는 느낄수잇는가?

朝鮮이라는 一의畸形的存在속에서 (略)以來의普遍相을 發見하지못하면서 우리는 그어떠한最後의 方策을 짜내어야할것인가? 임이 醫藥으로 의强心劑거나 强壯劑따위注射도서 고칠수업는 이心境의打診에對한處方箋을 그어데가서 求해야할것인가? 都會의汚濁된空氣속에서 心肺의虛弱이嗚咽하는者에게는 淸淨한 山海의

多 陽과 靜和가 그에게 새로운生의活路를 열어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營養不足의精神痲痺的 貧血症患者에게는 實로莫大한 營養素의供給以外에 平常人間의健康에까지 恢復식히기에는 非常한 網倫的人間努力과 物質的豊富가 必然的으로强要된다 하물며 普通人間以上의참피온的精力세인體質이랴?

朝鮮에서 藝術部門에關心하는그모든人格者가 實로 自體의健康狀態에 自信잇는診斷을 가지고잇는가? 우리는 우리의痼疾的貧血症에對하야 無限大한營養素의 供給될 原動體를 가지고잇는가? 아니이不具見에對한

偉 大한 母性愛와가튼 背後의聖光的庇護를 가지고잇는가?

나면서부터 헐버슨 綉弱한 이自身들이 제스스로가 物質로나精神으로나 自己들끼리의 生活地盤을닥거가야할 이不幸을 이孤獨을 타고난우리가 만일 이모든辛酸과 苦痛을 견듸여나갈 先天的健質과 後天的努力이업시 實로 서울의坊坊谷谷에 차고넘치는 밥통에 던저지고 채워지는 殘飯의盜食에서 그날의生命을 扶持해나가는 乞兒의處地에 빠진다면 우리는 임이 一의

無 感覺的樂天世界에耽溺되거나 또는그리운靑空이놉히아득하게 돈짝만큼내다보이는 暗黑의倉庫속에서아모도 모르는 悲劇的最後에목매는 以外에 다른길이 업슬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至今이 간알픈두팔로서 自體의營養素를 不可能의難關우에서엇슴을 때저리게 늣기고잇다 한아외完實된文化의 土臺를 우리들生活속에 자리잡게까지 나날이 向上되는바 文化의建設이 우리들밥밋헤서 地軸이울릴만한 衝動을 느끼게하고 잇지못할도 아니, 눈물겨운그努力이一簣二簣의土壤으로서이陰濕한不毛地帶우에

來 日의基礎의鞏固케뚝뚝 한보탬이 되지못하고 잇습도 잘알고잇다 이러케까지도 自體의貧困과無能속에잠겨지내는社會란 呪咀밧기에너무도 黙從 屈忍에매마즌深傷의 痛歎을간직하고잇다 그러면?……나는 끄트로 이러케 호자 물어보리라―

文學이나 더나가藝術을根本的으로는啓蒙 敎養식히는 還貨한 文化敎育機關을너ー들은가지고잇는가?또 그도업다면모든藝術을 全的으로 바터드리고 키워가기爲한 이絕大한犧牲行動에(出版으로劇場으로 公衆集會所로)바치는바 莫大한物質的提供의

大 明이잇는가?아니,그들各自가 未知의奇蹟을기다리는悲願에서 한거름한거름식의 念願한擴張이잇슬뿐이요 決코 一時的奇蹟行動에 僥倖을 기달려 아니그勞食내여 小我에 熱中되는바 어리석음이업다는데 敢히 冷徹한覺悟를내릴수잇는가?…… 相對的個人의 數만흔 苦難는冷萬하고도남는 눈물겨운 苦難이잇다 「光明한쪽을 열고난호는 어머니의心境을 우리가 참으로 理解할수잇는 子息이될수잇다면 우리는 그래도 朝鮮한우슴과 눈물과 꿈과 行動에서 오늘에서 來日의生을으로 行進하는 우리끼리의 歡悅이 잇슬것이다。

―一九三四、九、二七日밤―

震檀學報刊行 創刊號는今月中旬에

조선학(朝鮮學)의 권위자 제씨로서 조선 및인근(隣近)문화의 연구를 목표하고 진단학회(震檀學會)를 조직하엿다함은 이미 보도된바이어니와 해학회에서 회원제씨가 연구한바 학술론문을 발표하라고 연사차(年四次)학보를 발행하기로되어 편즙에 준비중이던바 금월중순경에 창간호를발행하리라하며 편즙하는이는 리병도(李丙燾) 리윤재(李允宰) 리희승(李熙昇) 손진태(孫晉泰) 조윤제(趙潤濟) 김태준(金台俊) 제씨이며 발행소는 경성부 견지동(堅志洞) 한성도서주식회사(漢城圖書株式會社)라한다

朝鮮映畵의振興은 오즉映畵人의態度如何에

朴基采

十 餘年의 歷史를 가진 朝鮮映畵界의發展過程은 다른藝術部分의 發展過程에 比較하야 참으로寒心할現狀이다。映畵가 새로운藝術로써 社會的敎化問題와 文化發展에 重大한役割을 가지고잇는것이라고하면 朝鮮에 잇서서도 映畵人들은 누구보다도 몬저 映畵藝術의偉大한眞理를 아러서야 할것이다。그러나오날까지 우리들映畵人은 너머나 朦朧한가운대서 映畵를아러섯고 映畵藝術의 偉大한眞理를

喪 失하엿섯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닐것이다。아니몰수업섯슬것이다。映畵人들에게 이것을 追求할 面 이에對하야서는 各自가正當한理由를 가젓슬것이다마는 ―오날까지의 그業蹟을回顧하야보건대 우리映畵人들은藝術的精神을 떠나서 너머나荒漠한벌판을 거러왓스며 無我無意識中에 아름다운 스크린에서 氣分의 탈춤을추고 잇섯다고 하드라도 이에 對한 辨明은 퍽이나薄弱할것이다。

映畵藝術이 다른藝術의部分에잇서서보다 社會的敎化問題나 文化發展의意義잇는機關으로서 더한層重大한

役 割(우리들이생각하기에는)을가지고잇는것이라고하면 映畵藝術家들은다른部分의 藝術家보다도 더한層自重하여야할것이고 愼重한態度로서 나가지안하면아니될것이다。

映畵人들이 自重하여야할것은 映畵藝術이完成되는날까지의그特徵를考察하야볼때 여기에小說家가잇고 音樂家가잇고 舞踊家가잇고 畵家가잇고映畵家가잇다면, 다른部分의諸藝術들은 各自가單獨으로서 自己의藝術을發揮할수잇는可能性을가젓스나, 映畵藝術家만은 到底히單獨으로는 藝術로서成立식힐

可 能性을 갓지못하엿다 이에原作者脚色者 監督者 撮影者 俳優等이모ー든藝術家들이 一身同體가되여야映畵藝術은成立이되는것이다

例컨대 文學藝術에잇서서小說家가小說을쓰는것과가치映畵藝術은 그性質이單純性을갓지못하엿다 映畵專門技術의綜合的技術로서 構成되는것이 映畵藝術인만큼 이專門技術家들―卽映畵人들의態度如何엔映畵의生命이左右되는것이다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映畵의振興을 爲하야서는如何한態度를 取하여야할것인가。나는 무엇보다도우리들이映畵事業家가 아니나온다고嘆息을하기前에 우리들의

生 活부터가 좀더映畵的이라야하겟고 좀더映畵藝術에對한眞理를 아러야하겟다

朝鮮에잇서서 映畵藝術만은 다른藝術部分에比較하야 그發展過程이 오날에잇서서初創時代보다도 衰退하고잇는것을몰때나는―藝術品으로서 國際的商品으로서도 産業的要素를 가지고잇는것은 오즉映畵가아니엿든가―하고몹시興奮이될때가만하엿다。그러나 이를冷靜한立場下에서過去十餘年間의映畵人의映畵的生活을 한번곰곰히回顧하야볼必要를 느끼게된다。

現 在映畵生産高가 世界的으로 第二位의榮冠을占領하고잇는 日本內地映畵界의初創期를 回顧하야볼때 오즉그當時의熱熱한映畵人들의態度는 오날의日本內地映畵界를 樂上하엿고 그映畵의힘은 文化發展의中心이되엿슴뿐아니라 社會的敎化問題에잇서서도 唯一한機關이되여잇는것은 周知의事實이다

朝鮮에잇서서도 그初創期부터發展過程을 想像하야볼때映畵人들이 좀더―自重하야 나왓스면―오늘날이러케荒凉한벌판에서는 헤매이던아니하엿슬것을―。이는過去이다。過去는어데일부터라도 過去이니 우리는

過 去의모ー든功罪를淸算하고 明日부터오즉未來를爲하야 우리는새로운精神으로 새로운出發을하자―

1,338,619,916時間

朝鮮人의一年間 洗濯하는時間 흰옷입는탓이라오

조선사람은 흰옷을 만히입기때문에 이에따라 또한 옷이 자주덜어워서 세탁을 자조하게됨니다 그런데 최근총독부에서 조사한바에의하면 조선부인이 세탁에 낭비하는 노력은 적지안흔데 일인당 세탁시간이 일년간에 일백삼십륙시간 이라합니다 그것을 전인구로 따져보면 십삼억삼천팔백륙십일만구천구백십륙시간이라는 놀래일수자라고합니다 이와가티 흰옷을입는것은 가정에잇서서 시간상으로 나또는 물질적으로 나손해가되는것으로 엽밧은 되도록 색의를입어 세시간을 다른곳에 리용할필요가 잇다합니다

童話 피리잘부는어쇠 (五)

盧良根

어쇠는 가슴을 조이면서 엥하는 나무아래서 호랑을 구경하고잇는데 한참만에 호랑이는 어데를마젓든지 어ー흥소리를 한번지르더니 그냥땅에가쓰러젓습니다。그꼴을본 어쇠는 엇지도긔쁘든지 빨리나무에서가 여내려가서

「어리분참고맙습니다…」하고 먼저치사를한후에 간난이어머니가 다래몽둥에서 떨려지든 이약이로부터 약지여가지고오든이약이며 은피리엇은이약이와 호랑이에게 쫏겨나무에올나가든 이약이를 죄다ー하엿습니다。어쇠의 이약이를다들은그들은

「애ー거 큰일날번햇구나、우리는 호랑이엇는줄은몰으고나무우에서 누가 피리를하도잘불기에 이밤에 이상하엿도다마라고 왓든것인데ー」

마추워잘되엿다。나무에서 낙상한데는 호랑이열이 떡조은약이라드라 그럼것엇시 예ー네가 이것을지고갈수밧잇스면 지고가거라ー」

하고 호랑이를 가르첫습니다 이말을들은어쇠는

「그래요、그럼저게 지워주십시요、꼿지고가겟습니다」

하고 좋동을동너대니까 그사람들이 호랑이를 어쇠에게지워주엇습니다。어쇠는 몇번이나 고맙다고 그사람들에게치사를하고 아까는 호랑이란놈에게쫏겨다녓지만 이번에는 되려그놈을 잡아들며고 목어운술도모르고 또다시밤거름을 니하엿습니다。그사람들은 험나 소장사다니는 사람들인데 도적이나 즘생이무서워 칼과총게 준비해가지고 떼여섯씩 떼를지여다니는 사람들이엿습니다。

그런데 어쇠의부모와간난이는 움으로약을지으러간 어쇠가밤중이지나도 오지안흠으로

「웬일인가? 정을일허버렷나 그러치안호면 물에빠젓나ー」

하고 걱정을무수히하면서 이제나저제나하고 눈이빠지게기두르는판인데 그제야 어쇠가 「끙끙ー무엇을한짐지고 드러옴으로 반가히를뛰여나와「그런데 그게무어냐?」하고 뭇다가 큰호랑이를한마리지고드러옴으로 깜작놀나 모다물엇섯습니다。그래서어쇠는 얼는호랑이를 내동댕치며 그래간난어어머니가 죵어터나고 물어서 그저 그만하다는소리를듯고는 이마에흐르는 땀을씻으면서 로인에게 은피리엇든애기며 호랑에게 쫏께올나가든애기 웬사람들이와서 호랑이를고맙게 때려잡은애기며호랑이열이 낙상한때는 아서갈매오면 아조약이라는 바람에 지고왓다는애기를죄다ー하하양습니다。그때에야 세사람은 안심하고

「애ー장하다、용타ー」하고 칭찬하는일면 호랑이가죽을베끼고 배떼기를제고 열을께내서 따뜻한물에타서간난이어머니에게 먹엿드니 파연 오리지안아서 차차기운을 엇어서 말도하고 몃일후에는 아조나허서 일어낫습니다。간난이어머니는 다나허서 억쇠가자기때문에 고생한애기를듯고는 눈물을흘니면서 엄마치사를햇는지모릅니다。그후부터는 두집은다시 더욱정답게지내엿다고합니다。(쯧)

京城女子基靑 西洋料理講習

(京城女子基督敎靑年會)에서는 현대우리가정주부들의 요구에 응하기위하야 이번에새로히서양료리반을조직하고 매수요일(水曜日)오후한시반부터 두시간동안 서대문정일정목 (西大門町一丁目三三)동회관에서 서양료리실습을하리라는바 선생은 최활난씨 김소부인인데한달의실습비(實習費)는 일원이라한다

이것도生存鬪爭

한마리의 물고기를 中心으로 살기위하야 눈을 부릅뜨고 싸우는 두마리의 갈매기。운수조흔 寫眞師가 偶然하게도 望遠렌스로 撮影한 珍寫眞。

玄濟明氏獨唱會 ……曲……目……解……說……(上)

梨專敎授 朴慶浩

十 月 五日에 公會堂에서 開催되는 玄濟明氏의 第二回 獨唱會를 압두고 一般의期待하는바 적지안커니와 인제그가 노래할 曲目의內容을 大略紹介하야 當夜參席하실이들에게 豫備知識을 드리고저한다。聖歌劇이라고하면 依例히 헨델을 連想하게되며 헨델을말할때마다 「메시아」를 생각아니할수업다 一七四二年에 떠블린에서

作 者 의指揮下에 初演出이되엿以來 今日에 니르도록宗敎音樂의 最頂點의位를 갓고잇는것이다 當時에 音樂으로 沈滯하엿든 英國은 메시아의 發表와함께 大센세이슌을 이르커 中間에 할렐누야合唱이 나올때는 엽聽衆이 한껍에이러섯다고한다 이리하야 今에도 할렐누야合唱은 반드시起立하야 듯는風俗이생겻다。인제玄氏가부를 朗詠과 詠唱은 獨唱歌謠로서 할렐누야合唱과 가튼價値를 가진者이다。朗詠이란 朗讀式의 音樂的宣言으로서 音樂的法則보다도 自然言語의 高低와抑揚을

基 礎로 하엿기때문에어느程度까지 自由롭게 부를수잇는것이다 詠唱(아리아)은홀륭한獨唱歌謠로서 언제나獨立的價値를 豊富히가지고 잇는것인데 特히 「山谷은놉흐리라」(Every Valley)는모든山과모든골작이를부르며 웨치는노래이니만큼 神秘的雄壯美가잇는曲이다。

民謠로 모든音樂形式이 생겻다는말이 올타고하면 民謠가업시 音樂藝術의 存在가 不能하다는것을 否認할수업다。「상기스톤의鐘소리」이것은 愛太利民謠로스커바의。테모ー드를 潤飾하야 世界的으로 알니워진것이니 「쉐상기스톤」언덕우에잇는鐘(Cibbee)률은

戰 地 에나가든 兵士들이 凱旋하고 도라올때마다 明鐘하게 울니는 歷史的鍾인데 戰爭의恐怖를 늣기고잇든 民衆은 이鐘소리를 듯고 喜悅의노래를 불너 버릇한것이 이民謠가 되엿스니 그歌詞의大意를보면 이와갓다

凱旋의 鍾아 울녀라
남생勇士들이여
祖國의山川은
그대들을 歡迎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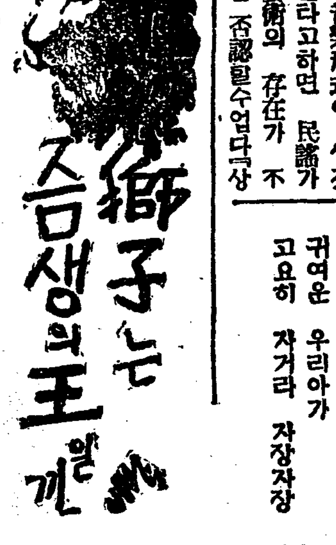
그다음 베니쓰의民謠인 「자장가」는 그야말로 애끗는 자장가이다 베니쓰에는

水 夫 가 만히산다 사나운波濤우흐로 사랑하는男便을 떠나보낸 안악네 잠자는 애기를품에안고 넘어가는 붉은놀을 바라보며 흥얼흥얼부르는 노래이니

자장자장 엄마품에서
압바는 도라올때 아직안되엿다
자장자장 따뜻한 엄마품에서
압바가 안도라와
엄마는 한숨짓지만
귀여운 우리아가
고요히 자거라 자장자장

猛獸사냥의所感 獅子는 즘생의王일까 ⑱

英國狩獵家 『포ー란』



또나는 이런생각을가지고잇습니다ー녯날사냥군들이 사자를 그러케 무서워하야 위한것은 그들이 이즘생을 항부로 부상식혀노코 이것을 또다가 그만 역습을당하군한까닭이라고。

녯날로 말하면 즘생잡는무기도 오늘날만치 효과가잇지못햇고 그리하야 때로즘생과떨리떨어진곳에서 첫방총을노치안호면 안될경우도 만허서는 즘생을 당장죽이지는 못햇든것입니다。다못 물자리가가까워서 겨눈것이 맛지안코는못배일경우에 한해서만 즉사식힐수잇섯든것입니다。

부상당한 사자가 뒤로추격을 당할때에 맹렬히 역습할것은 정한리치입니다。조금이라도 유렵가 로서의 본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만한것쯤은 미리짐작할것입니다。이것은 사자의탓으로만 돌릴것이아니고、또이때문으로 사자를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즘생이라고 생각할것도못됩니다。

핍박을밧든가、제멋대로잇든가 그어느경우의 사자를막론하고 그습성에대한 우리들의 오늘날에 어든경험과 지식으로는 사자를즘생의왕이라든가 또 동물계에서 제의흉악하고 무서운 대적이라든가하는말을올타고 설명할수는업습니다。나는 사자를즘생이어떤 놉자리에잇다고생각하지안습니다。

고래의용맹한 사냥군들이정해노흔 판결을 나는오늘날의 유력한수렵가와 에만연관찰가와가티 굳다고하고 이것에 반대하는 차움을 거는것입니다 우리들의 외견으로는사자와지위를 올타고증명할수는업는것입니다。

위풍당당한 코끼리를 내가 새「즘생의왕」으로 내세우는것은 코끼리에 대한 내경험과 관찰이나로하여금코끼리에 대해서는 두려워위할 생각을 먹게하고사자에 대해서는 업수히녀일마음이들게하는탓입니다。

코끼리는 사람을 위협하려고 하지안습니다。그러나사자는 그행동을맛고 위험하는편이 아니하는편보다 만흔것입니다 백에서 아혼아홉 경우까지는 사자의 위험에는 사람이 열혼이나도 코끼리의 위험에는 그대저안흔것이사실입니다。

나도 이것을압니다。ー하지만 나로서는 부상을당햇다든가 어떠케해서 잔득 성이나서 미친듯이 덤벼들어습격하는사자를 맛대고겨루면 겨루엇지、나를덤벼치려고드는 성난코끼리와는 감히맛서지못하겟습니다。

「세렝게티」평원에서 우리는 한머리나 또는 여러머리사자와가티 회롱하며 놀수잇스나 그러나 코끼리와는 마음노코 놀수잇다고하지못하겟습니다。(쯧)

◎米國서列車스피ー드 世界新記錄

【시카고發聯合通信】 蒸氣機關車裝置列車의 五十哩以上距離의스피ー드世界記錄은 從來英國서倫敦 스윈돈間七七、五哩를時速八一、六哩로突破한것이엿는데 今番米國에서시카고・밀워ー키間을닷는센트폴●앤드●파시픽鐵道의急行列車가메ー페어●뷔스콘신湖間六八●九哩를時速九〇●六哩로疾走하여 英國記錄을時速九哩의大差로突破하엿다

世界新記錄을樹立한것은勿論 此際쉬카고●밀워ー키間全線八五哩를 疾走함에要한時間은一時間七分三十秒로 時速平均七五、五哩이다 搭乘하고잇든乘客의말에依하면彼等은自己들이탄列車가 그러케스피ー드를내인줄은 밀워ー키에到着할때까지 조금도몰낫다고

土耳其서 배혼드는 춤禁止

【스탐볼土耳其發聯合通信】有名한 『胃袋단스』一名 『걸걸춤』은最近스탐불市當局으로부터風敎上有害하다는理由로禁止되엿다 『걸걸』은 土耳其와小亞細亞、埃及地方最古의 傳統잇는『단스』로『궁둥춤』인『배혼드는춤』인데 土耳其서는特히民衆間에 人氣가잇서서 結婚式其他의祝宴에는 반듯이잇는것이다 잘추는데는 相當히訓練을要하는것으로스탐불에서는 多數한 先生이잇서이 『단스』를가르치는것으로 넉넉히 生活할수가잇는데 이사람들에게 今回의禁止는大打擊으로 直時衣食의 方道가끈허진것을 意味하고잇다

배혼드는춤은 昨年末埃及政府에서는 이를禁止하고잇서이禁止를犯한者는 科料에處하게되엿는데 歐羅巴人의一部에는傳統잇는 名物단스가 漸次로衰亡되여가는것을 愛惜히여인다고。

淑明女高普 秋期陸上運動會

市內淑明女子高等普通學校에서는 今月六日(土曜)午前九時부터 該校校庭에서 陸上運動會를開催한다는데 雨天이면順延이라한다

法律顧問

▲무를말은 업서에
▲요령은 간단하게
▲한글로 똑똑하게
법률고문

改嫁한母의遺骨 차질수잇슬까

問 甲(男)乙(女)이數十年前結婚하여同居하든中丙이란(子)를生하고 其後甲이死亡한後丙이三歲時에乙은 丁이란男子에게로改嫁하엿습니다 乙은 丁에게가서 戊、己란아들 兄弟를生하고 戊、己가年齡十八二十歲時에死亡하엿습니다 其時丙이란아들은年齡二十五이엿는데 乙의遺骨을自己父인甲의墓所에갓다 埋葬하겟다한즉、戊己가返應하고 自己山所에埋葬하겟다하오니 如何한手續을하여야 丙의말대로成立되겟는지요 但乙은丁에게로 改嫁時甲과離籍하여가지고 丁에게入籍하엿스며 丙은其時의甲의弟의집에맛기고갓습니다

答 유골을차즐수업습니다 (辯護士 辛泰嶽)

對米關係五十年史 駐米最初朝鮮公使 (一)

湖岩

駐美全權大臣 朴定陽

오늘날까지 美國側의 史料를 만히紹介하엿스나 이로부터 朝鮮側의 史料를 紹介하려하는바 駐米最初朝鮮公使朴定陽氏의 손소 적은美行日記와 美俗拾遺와 밋그他書札電報를 基準으로하고 日記와 政院日記와 公文書로는 省錄과 統署日記를 아울러 參照하며 이에關한 內外國人의 著用할文書까지 蒐集하야 아못조록 當時派遣의 光景과 이로해서생긴 國際的曲節을 우리目前에 彷彿히 再現케하려함이니 대저 韓米修約以來 韓淸間에 말성이 되는것도 이 公使派遣이엇고 一轉하야 美淸間에 諸難이 생긴것도 이公使派遣이엇스며 再轉하야 國際的關係의 全般이 된것도 이公使派遣이엇스니 어떠케ー 大衝動을 일으키는 外交界 重大問題의 그 發端은 어떠케 되엿는가? 함은 자못 當人의 興味를 자져내는 바 크다 할것이다

【韓】 美修約이 成立되지 六年동안에 朝鮮에來駐한 美國公使는 前後에 五人의交遞를보게되엿스되 이때까지 美國에 往駐한 朝鮮公使는 一人도업섯다 그리다가 포ー크가 駐韓美國公使臨時代理를 두번째 갓마치고 日本에 갓해 卽高宗廿四年丁亥(西曆一八八七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內務協辦朴定陽으로써 駐美全權公使를삼아 華盛頓에 派遣할새 同時에 內務協辦沈相學으로써 駐歐全權公使를 삼아 前往케하엿다 여기駐美公使朴定陽과

【駐】 歐公使沈相學의 任命된 傳敎를 보면 이러하니 傳曰 美國首先通和 互聘有年 而本國尙未遣駐京之使 實屬欠事 協辦內務府事朴定陽特派全權大臣 使之前往美國京城駐箚 受辦使事。傳曰 英德俄義法五國 次第締約 友義漸敦 不可無派員駐京之擧 協辦內務府事沈相學 特派全權大臣 使之前往英德俄義法京城 隨便駐箚兼辦使事。라하섯고 同日에 또 다시 말하면 駐箚英德俄義法五國公使인 沈相學은 身病으로 곳遞任되고 그대신에 內務協辦

【趙】 臣熙가任命되어 朴公使와 한가지로 가게되엿다 朴公使는 奉命한지 一週를 지내서 八月 初八日에 天陛를 下直하고 京城에 駐在한 外國使臣들과 作別한後 國書를 모시고 南大門外에 나가 장차 美國을 向하야 떠나려하드니 뜻밧게淸國의抗議로해서 朴公使가 出發하지못하고 國書를 鐵管賓館에 奉安한後 도로城內에 還入하엿다 淸國의抗議는 무엇이냐하면朝鮮이 西洋에 公使를派遣함에는 먼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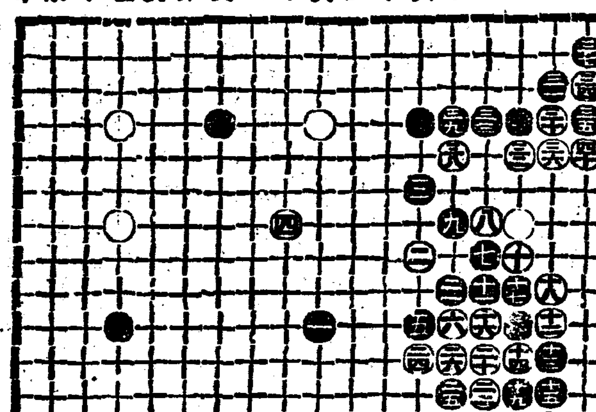
【淸】 廷에 相議함이 可할뿐더러 朝鮮은 海外에 一貿易商도 업거든 使臣을 派駐하야 부질업시 國帑을 消費하려느냐하고 너무 걱정을함으로 高宗께서는 隣誼를考慮하사 特히淸國皇帝에게 間議함을 엿거지안으섯다 그러나 美國에서는 淸廷의 無禮를 憤慨하야 北京駐在美國公使덴비ー(Charles Denby)를 시켜直接으로 淸廷에 抗議하기를韓美兩國이서로 公使를 派遣하는것은 淸廷의 周旋으로써 이미締結된 韓美條約에明示하엿슴에 不許하고 淸廷이지금와서

【容】 喙하는것은 不當하다 責하엿고 京城駐箚美國公使 「딘스모어」는 袁世凱에對하야 詰難하기를 前年韓廷이使臣을 日本에派遣할때 淸國은 이에對하야 何等의異議가 업다가오늘날米國에 公使를 派遣하려함에 際하야 갑작이異議를申立함은 日美를 差別待遇하는 것이라고 一喝하엿다 이 結果 淸廷에서는 九月初七日에 마침내 歐米派使를 贊成하엿스나 다만 使節의 全權은 妥當치안은듯 한즉 駐箚로改稱하는것이 可하겟다고 主張하엿다。

◇本社主催◇ 國手選拔 圍碁對局譜 {四}

略符＝(口百△＝二百◎＝三百)

白 蔡極文
黑先 丁奎春



(●三一)丙의三 (○三二)丁의五 (●三三)戊의四 (○三四)乙의三
(●三五)乙의四 (○三六)丙의五 (●三七)乙의二 (○三八)己의五
(●三九)己의四 (○四〇)乙의五

◇死點 (○將點)丁의十五

◇對局者談＝白이 丁의七 將點을 先次保存한 것은 依例로 看做되나 또한 明見이아닌바 아니다 白이 乙三에 除又除함과 己五의 窺視함도 前例는 前例나 見習者로는 模範이될만한하다 黑도 庚의六七 中央方面이 아직 順序를 이루지못하고 白도 庚의十一點가 安定치 못하엿스니 來頭進展이 一層 더 注目處이다

漢詩募集

詩題 菊花
押韻 時遲枝知危
期日 陽十月十五日
(學藝部選)

三南水害義捐金品

▲本社接受=三日午正까지整理分▼

現金累計 三萬七千二百八十八圓七十四錢

物品累計 七萬九千九百三十五點

京都南朝鮮水災救濟會

京都市左京區[illegible]町三三ノ一

一金二十七圓八十四錢

二圓四十八錢 前者音樂會未收分收入

內譯

五圓 三圓 二圓 二圓 一圓五十錢 一圓 一圓 一圓 一圓 一圓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三十錢 二十錢

西陣婦人會 金浩鎭 金鎭泰 金命業 許且律 靑仲煥 河南哲 金銘勳 姜斗石 金相浩 金赫 成哲 黃三先 孫炳喆 成錫鳳 朱宰佐 金宗默 洪範杓 崔五仲 李榮宰 崔秉八

十三錢 十錢 十錢 十錢 十錢 十錢 十錢 十錢 十錢 十錢 十錢 十錢 十錢 十錢 八錢 五錢 五錢 五錢 五錢 五錢 五錢 五錢

李湧川 崔九洞 黃相吉 葉國慶 李典鏞 李鎭淳 兪鎭玉 金順福 諸元璉 朴武龍 金鳳周 鄭珍瀅 鈴木 遊部 朴永斗 邱金昌 崔永植 宋樂秀 堀川榮三 李斗玉 李相烈 李鍾樺

本社晋州支局經由分

一金十三圓八十二錢 (送料除殘) 晋天敎會南正理派一同

內譯

一圓 一圓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三十錢 三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金烘圭 韓圭淑 李忠汝 李玎熙 章善和 王基琮 李定雨 金琪應 李仁來 薛鎭夏 金潤斗 陳溶一 許玹 蔡基相 朱尤珵 李琳煥 南麟祐 夏敬熹 鄭致萬 河載玉 李敬和 韓麟愚 閔英鎬

二十錢 二十錢 十錢 十錢 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十錢 十錢 十錢 十錢 十錢 十錢 十錢 十錢 十錢 五錢 五錢 五錢 五錢

盧仁鉉 金致式 許洞 崔升煥 趙鏞玉 許雲 徐庚鎭 金昌駿 朱錫求 李丙太 李鍾洪 李燦玉 朴琮源 朴文圭 姜燦秀 鄭佑相 金秉煥 李亨洙 崔圭瀚 成道鉉 李成來 文學圭 姜祥魯

和歌山縣東牟婁郡紀勢伊中線 間組朝鮮人從業員一同

一金五十六圓

內譯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一圓 五十錢 二十錢 五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李成朱 具七善 金永煥 李鍾洵 趙玉珍 金鳳祚 秋用順 裵元坤 岩本文吉 金基八 朴聖載 朴德用 曺喜倍

和歌山縣東牟婁郡下里町

一圓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三十錢 三十錢

鄭春植 權丙喜 洪雲燮 金木水 梁岩右 金德守 鄭斗星 姜命守 陳萬洙 李東植 金明秀 朴成贊

和歌山縣東牟婁郡下里町

二十五錢 李聖得

和歌山縣東牟婁郡下里町浦神

五十錢 一圓 五十錢 三十錢 二十錢 三十錢

李道信 裵富貴 車鳳述 徐贊伊 朴俊化 黃斗基

和歌山縣東牟婁郡下里町浦神

一圓 二十錢 五十錢 二十錢 二十錢 五十錢 十錢 二十錢 五十錢

金在善 柳聖男 裵德述 裵鳳根 李德龍 金容植 金泰用 鄭命用 金華德

和歌山縣東牟婁郡下里町玉浦

五十錢 一圓 五十錢 五十錢 三十錢 一圓 二十錢 五十錢 五十錢 三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五十錢 三十錢 二十錢 四十錢 三十錢 三十錢 五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三十錢 十錢 二十錢 一圓 三十錢 四十錢 三十錢 三十錢 五十錢

金命律 宋秉璣 申且基 黃永久 裵貞泰 千碩鳳 李三鳳 朴良碩 金用守 田相允 千慶祚 李圭聖 宋致善 金昌鎬 宋達元 廉龍燮 都且道 金石伊 朴德七 趙達大 李鍾甲 尹成淑 李允碩 朴仁春 任允俊 尹秉淑 李相基 孫辰玉 金允祚 朱昌五 余相用 李英學

和歌山縣東牟婁郡下里町玉浦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五十錢 五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五十錢 三十錢 二十錢 四十錢 五十錢 三十錢 二十錢 三十錢 三十錢 五十錢 五十錢 二十錢 三十錢 二十錢 五十錢

黃孝出 金石漢 黃鳳壽 李錫文 姜元植 金鍾柱 金啓發 尹昨鳳 禹壽福 宋琪童 金學洙 金逸浩 金每支 沈在浩 孫昌佑 李成根 金永秀 金三甫 金昌浩 權山東 劉基奉 兪都安 陳末守

和歌山縣東牟婁郡下里町浦神

五十錢 一圓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二十錢 三十錢

朴石順 卞坤伊 陳鳳智 都萬浩 金平守 魏且俊 鄭武浩 權明守 李萬根

和歌山縣東牟婁郡下里町玉浦

一圓 十五錢 十錢 二十錢 五十錢 二十錢 二十錢 十錢 十錢 十錢 二十五錢 十錢

李相根 金昌浩 崔道政 崔萬祚 尹實根 李斗生 兪在官 金生道 金敬中 李石祚 韓百萬 李成伯

和歌山縣東牟婁郡田原町

一圓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二十錢

權鳳藝 李必龍 文致吉 尹基述 金良守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五十錢 三十錢 五十錢 五十錢 十錢 十錢 十錢 二十錢 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五十錢 二十錢 十錢 十錢 十錢 二十錢 二十錢 三十錢 一圓 三十錢 二十錢 二十錢 十錢 十錢 十錢 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李申守 朴貞叔 朴南叔 秋二順 徐致萬 孫成國 裵拓基 李丙宿 趙學淳 金成大 李丙玉 李圭宰 蔡善學 陸乙祿 金龍日 安鳳春 金甲守 鄭元一 金成大 鄭鳳萬 鄭興一 文致奉 崔鳳文 崔永根 李學贊 柿原理一 小林志行 松本政一 金貴根 田村八郎 春山正夫 山本文吉 孫永祚 文福萬 朴玉律 金鏞圭

本社朝陽川支局經由分

一金三十二圓 衣類百三十點 (總經費除殘)

內譯

六圓 三圓 一圓 五十錢 三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五十錢 一圓五十錢 五十錢 二十錢 五十錢 五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三十錢 四十錢 五十錢 三十錢 十五錢 五十錢 衣二點下一點 二點 二十錢 一圓 二圓 十錢 十五錢 十五錢 五十錢 一圓 一圓 五十錢

老頭溝 朝鮮人民會 電氣會社 源永商店 文承武 崔達旲 姜師雲 李石山 朴熙泰 馬家舘 北鮮商店 趙義淳 京城屋 丁漢燮 張學俊 嚴敬男 徐廷旭 雲水商店 李時元 羅信柱 李應伯 崔紅桃 日盛舘 邊溶殷 文川冷麵屋 明月舘 孫明月 朴金順 朴炳奎 間島日報 老道溝支局 老道溝舘 崔相烈 張鳳龍 石斗萬 朱益格 金載熙 安德元 崔南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十錢 七十錢 五十錢 五圓 三圓 三十錢 五圓 一圓 五圓 二圓 一圓 七圓 二圓 一圓 一圓 三圓 三圓 三圓 一圓 二圓 一圓 一圓 一圓 一圓 一圓 二圓 五十錢 一圓 二圓 一圓 一圓 一圓 一圓 一圓 五圓 一圓 五十錢

張衡璣 朴興道 黃海旅舘 金成仁 孫贊京 應七星 咸仁先 明月溝朝鮮人民會 韓源根 玄邁香 鷹田政一郞 金昌潤 吉雄洋行 朴靑山 安平國 三南樓 遊樂舘 一心理髮舘 鄭明俊 文鍾熙 安靜洙 咸成舘 金美玉 明記零買所 信一洋品店 黃順甫 泰昌商店 龍井商店 協信社支店 同友組合 和信商店 東洋舘 守信堂圖章舖 朴永權 池龍君 元井商店 大同屋 李昌根 配天商店 林雲鎬

一圓 一圓 一圓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一圓 一圓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一圓 一圓 五圓 三圓 二點二合四點 一圓 二點 二圓 一圓 五十錢 二圓 二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一圓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三十錢 十錢 三十錢 五十錢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金元俊 合成商店 金達奉 金南龍 李炳喆 和成商會 鳳山屋 廣澤商店 德昌商會 慶安商店 中央冷麵家 協成泰 天興乾材局 協和洋行 崔鴻北 金絲珠 金芙蓉 金芙蓉 海東洋行 靜江時計店 東滿商會 金化旅舘 海東旅舘 榮吉號 三成商店 徐鍾範 姜鳳烈 吉成商店 梁在善 李基浩 黃海商店 金漢益 海州冷麵 李宗林 南奉熙 金德洙 泰盛商店

五十錢 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三十錢 五十錢 二十錢 十錢 二點 一點 二點 二點 二點 二點 二點 一點 三點 二點 二點 三點 三點 十一點 三點 二點 七點 六點 一點 十二點 十四點 二十九點 六點 五點 六點 十一點 一點

趙溶淑 趙淳弟 吳文玉 吉源商店 崔宗烈 李成浩 表昌淳 張成玉 李鳳俊 金濟根 黃順玉 尹元善 孔愛子 金今蘭 金桂花 金玉順 張弄球 趙明月 朴金玉 趙海東月 李正子 李弘桃 河錄花 李山紅 金美玉 李丹心 崔蓮紅 白桂花 趙英子 松鳳河 崔煥誕 趙柏河 金永達 柳海泳 金東元 海東洋行 蓮花 楊秉春

古邑盧贊根氏募集分

一金五十七圓十六錢

內譯

十圓 二圓 二圓 二圓 一圓 一圓 一圓 一圓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一圓 一圓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三十錢 三十錢 三十錢 三十錢 三十錢 三十錢 三十錢 三十錢 三十錢 三十錢

三合精米所 雲興商會 信成商會 雲坪靑年會 雲坪少年會員 姜雲則 古邑商會 李爽嬅 張淑嬅 三榮商會 金銀玉 金持淳 金浩俊 方丙鉉 金炳泰 李良禮 丸星運送店 華陽少年會 金成稷 金彝柱 泰興商會 嚴鳳錫 泰盛商會 李學洙 金逆銓 白元煜 李竹春 盧在福 韓昌三 金昌燮 車祥大 金學奎 弓光玉 白憲濟 金祥浩 金周彦 洪元杓 金信鳳 文應八 白戊濟

三十錢 三十錢 三十錢 三十錢 三十錢 三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三十錢 三十錢 二十錢 三十錢 二十錢 二十錢

韓昌禹 光東局 金鼎昇 李道欽 金學珍 李道敬 李瑾柱 安世洽 盧鎭均 朴鎭浩 李贊奎 洪昌赤 東泰樓 玄文燾 咸龍一 李鳳化 李淳鎬 金允喆 金炳浩 金一銓 金全生 金鍊銓 金基泰 金正植 姜得三 金文濟 金圮濟 白樂漸 金壽薰 趙亨均 鄭觀道 崔承錄 金旭銓 李成龍 白樂洙 洪孝湛 趙成翁 宍雲浩 金容植 [illegible]宗煥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十錢 十錢 十錢 十錢 十錢 十錢 十錢 十錢 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十錢

李淑卿 金尙弼 林鍾楨 姜得深 姜龍順 李鍾順 李鳳雲 趙士彬 宋孝均 李鍾禎 姜雲五 洪尙孝 盧成玉 金亨熙 林應三 朴京玉 林德根 林潤根 金周勳 金京洙 嚴孝信 崔鳳億 金希喆 姜周京 金明燁 洪昇杓 文碩默 文利默 林億均 金祥洙 李鍾實 李鍾完 鄭奎雲 金鳳順 金昌旭 趙正碩 宋大鵬 李吉先 金祥薰 金利燾 金瑾燾 朴秉略 金奎銓 白樂亨 郭汝景 郭志賢 金炳武 林容均 朴湖哲 白行五 方三德 金福實 張錦珠 金義銓 印龍孫 崔鳳錄 宋道淳 劉應祚 金萬壽 劉孝祚 趙鷹均 林泰洽 白倫濟 李順玉 佚禮玉 洪永道 安道順 韓福禮 金周晃 金明吉 車善德 車順德 崔君稷 白亨濟 盧在宋 盧在祿 金昌有 金起玉 林信濟 崔東範 車孝德 崔濟乾

十錢 五錢 五錢 五錢 五錢 五錢 五錢 五錢 五錢 五錢 十五錢

桂元三 金學成 李禮恒 林淑京 玄永彩 李樂熙 洪昇燁 李謀燁 承氏 金京仙 金昌龜 金昌麟

十錢 十五錢 九錢 五錢 五錢 五錢 五錢 五錢 五錢 二圓七十二錢 [illegible]

金秉植 李龍洙 車成德 金錦女 朴春鳳 羅京辰 金仁淑 李春仙 洪確實 林相欽

本社新泰仁支局經由分

一金二十九圓七十五錢

內譯

二圓 一圓 一圓一錢 一圓 五十錢 三十錢 三十錢 三十錢 三十錢 三十錢 三十錢 三十錢 二十錢

金錦東 柴泰年 新泰仁金融組合職員一同 河明律 朴佑緖 吳鶴汀 朴俊緖 朴正出 朴相學 崔榮樂 李賢柱 姜大完 池榮洙 富田喜一 張富順 朴榮求 金箱得 申斗三 朴來浩 宋秉浩 李佳奇 劉貞淑 權萬圭 朴文圭 金炯殖 無名氏 金英一 韓銀順 金点順 沈炳斗 朴日山 崔昌圭 無名氏 朴德奎 蔡東一 郭斗萬 河錦仙 金順用 姜大元 金奎星 朴光來 富田謙一 朴京長 高在萬 池相洙 李基東 金炳業 福蝶 田贊浩 李容權 鄭世鎭 姜良遠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十錢 十錢 十錢 十錢 十錢 十錢 十錢 十錢 十錢 十錢 十錢 十錢 一圓 五十錢 四十錢 三十錢 二十錢 二十錢 十八錢 二十錢 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三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申在山 崔輝瑞 李龍九 高允錫 李信變 李洪變 宋判玉 張初香 安秉玉 姜漢秀 嚴斗變 曺東石 金福 張点龍 方俊日 尹學容 辛泳珍 金亨來 孫元甲 姜翊秀 金点述 盧允樂 成珊瑚珠 金春子 朴春華 金錦仙 金得奎 吳海信 朴慶來 崔奉宇 實林面耶蘇會一同 朴琫來 李斗鉉 姜雲緖 洪鍾喆 金永春 金京長 金永禮 梨坪面滄東里어린이들 宋南燮 李月禮 李丙杰 鄭奉泰 趙燦卿 趙五睦 趙良敏 趙道順 金壽喆 金光述 金炯洙 金秉奎 金相喆 金東喆 朱永珠

本社義州支局經由分 (第九回)

一金二圓五十錢

衣類六十八點

內譯

二圓五十錢 吳順煥 白時煥

六十一點 七點

韓興秀 池田信 山崎新市

現金小計 二百十九圓七錢

物品小計 一百九十八點

▲取消 十月一日附安州支局經由分 十六圓六十六錢은 二重 [illegible]

連載短篇小說

戀風 (四)

張赫宙 作

安夕影 畫

「그럼 잠간만 기다려주세요」

그는 이말을 남겨고 밧갓헤 나갓다。 나는 그의 뒷그림자가 어둠가온데 사라진 뒤에도 밧갓을 내다보고 안젓섯다。 바람은 점점 세여저서、마당에는 거츠른 바람이 소리치며 지나가고 잇섯다。

나는 수연이가 행혀 내마음을 오해하지나 아니하엿나 하고 생각하엿다。 나는 그를 그의 사나이에게 맛기기는 실혓다。

나는 오늘 밤뿐이 아니고、영 그런 사내놈들의 가삼속에 수연이를 보내지 안토록 하기로 점점 내 결심을 굿게 하엿다。

나는 어떠케 하여야、할가 하고 그 방법을 궁리하는것이엇스나、조흔 생각이 떠올으지 안헛다。

그러고잇는 동안에 수연이는 살그머니 그림자를 나타내엇다。

「동모에게 양해를 어덧서요」

그는 방에 들어 오며 말햇다。

나는 무슨 양해를? 하고물으려다가、그의 뜻한바를 생각할때、또 그의 동모란 계집 아해의 추한 짓을 생각할때、구역이 날때와가치 가삼이 편치못하엿다。 나는 그 계집에 대신 수연이가 하고 상상하매 더욱 참지 못할것 가탓다。 수연이가 내게 온것만은 나를 평화롭게 하는 것이엇다。

내가 무슨 질투를 늣긴것일가? 나는 생각하엿다。 그러나 나는 그런 생각은 조금도 가지지 아니하엿든것이엇다。

「수연이」

나는 어조를 곳처 그를불럿다。

「네?」

하고 그는 내 얼굴을 처다보앗다。

그순간의 그 눈!

나는 그의 순진하든때의눈을 그때 다시 보앗다。 나는 내압헤 안진 그를 타락한 더셩이라고는 생각할수가 업섯다。

「말슴하세요。 너머 그러케 빤히 바라보시면 무시무시합니다요」

그는 호호호 하고 우섯다。 그 웃음소리는 [illegible]게 하엿다。

「수연이」

나는 그를 또 불럿다。

「말삼하시라구。 그래자 안어요?」

그는 빰에 미소를 지엇다

「아까 그는 또한번 그러케 처다보아 주십시오」

「네? 눈이라니요 어떠케요」

그는 나를 처다 보앗다。

「아닙니다 더 순진하게……」

「이러케요?」

그는 눈을 크게 떳다가、사르르 감엇다。

「아니야」

나는 또 불쾌해지엇다。

그의 그눈은 음란하엿기 때문이다。

「그러찬어요。 아까 수연이의 그눈은 처녀때 눈이엇지요。 나는 그……」

「왜 지금은 처녀가 아니라구」

「……」

나는 할말이 업시 그를처다 보앗다。

그는 내 얼골을 바라보드니

「아、그냥게서요 잠간만……」

하고、그는 말을 니어、

「정말 해중써를 만난듯 합니다。 눈만은 아직 어릴때와 똑갓네」

「남의 흉내는 내지 마시고……」 나는 벙그레웃지 안흘수 업섯다。

「흉내? 내가 흉내를……」

하고 그는 나를 처다 보앗다、나는 잠시 잠잠히 안젓다가、

「수연이。 내 힘잇는데 까지 도울터이니요、몸을 깨끗이 지녀보도록 해보시지요。 이것은 롱담이 아닙니다」

하고 말을 이엇다。

十月三日 (水曜)

◇午後六時童謠 一、齊唱가을 二、齊唱고추장 三、[illegible]旅 四、齊唱收穫 五、獨唱 六、齊唱송아지뛰더가는집 七、[illegible]가을밤 八、꽃밧 安德少女會 伴奏安[illegible]永 指揮 李鎭和

◇同六時二五分 家庭講話(二) 主婦가본現社會와그에對한希望 李貞圭

◇同七時三〇分 講話 兒童音樂에對하야(二) 黃[illegible]

◇同八時 流行歌 一、후ー피쟝…金[illegible]作曲 二、세病者 비라文[illegible]作曲 三、봄도한때…金[illegible]作曲 四、외로운아몸…金[illegible]作曲 五、서울小夜曲…張[illegible]作曲 六、서울行進曲…金[illegible]作曲 姜石燕 피아노 李[illegible] 빠이올린 文湖月 하와이안기타 全[illegible] 색소폰 尹[illegible]求

◇同八時三〇分 歌謠 一、春眠曲 二、乾坤歌 申花仙 [illegible]彩紅 大平 金永根

◇同九時 俗謠 一、愁心歌와엮음 二、寧邊歌 三、배다라기 四、山念佛 白牧丹 柳開東

◇同九時三〇分(東) 時報 뉴ー스 氣象通報 翌日프로그람豫告 뉴ー스再放送

十月四日 (木曜)

◇午後〇時五分 俗謠 一、吹打 二、길念佛 三、靑春歌 四、아리랑 五、開城難逢歌 六、梁山道 洋琴과奚琴 閔完植 短簫와細笛 李炳祐

◇同二時 常識講話 人格과損害賠償(三) 尹元上

◇同六時 하ー모니카二重奏와獨奏 一、二重奏 부랑젤將軍…데솔메스作曲 二、同 베니스의街頭……벨딩作曲 三、同雙頭鷲下……빠그네르作曲 四、獨奏 荒城의달……佐藤秀郞編曲 五、同배노래……클레잔作曲 六、二重奏 키스멧트……마ー키作曲 七、同越後獅子 第一하ー모니카獨奏 李祉音 第二하ー모니카 徐順泳

◇同六時二五分 라듸오學校 朝鮮樂器에對하야(一) 李鍾泰

◇同七時三〇分 講演 大阪風水害慘狀을보고와서 朴尹錫

◇同八時 伽倻琴倂唱 一、短歌 滄浪歌 二、唱劇調 赤壁歌 姜太弘 鼓手 韓成俊

◇同八時二〇分(東) 피아노 ー新交響樂團練習所로부터中繼ー 알레키산타・젤레프닝

◇同八時四五分 映畵이야기 물타는물가 李患興 音樂伴奏

十月五日 (金曜)

◇午後〇時五分 獨唱 一、洛東江…朴泰俊作曲 二、어ー이…同上 三、愛想曲…李冕相作曲 四、배노리…近衛秀磨呂作曲 五、故鄕…齋藤佳三作曲 六、船頭의노래…伊藤祐司作曲 七、먼・산타・루치아…마리오作曲 八、호다…데발리아作曲 九、포시리프의漁夫…갈리아、페라作曲 金海 伴奏 金崗

◇同二時 家庭講座 愛敬과貞操(一) 金泰治

◇六時 童話 王子三男妹 李亨植

◇六時二五分 라디오學校 朝鮮樂器에對하야 李鍾泰

◇七時三〇分 講演 最近의社會相 李[illegible]相

◇八時 라디오、드라마 모던夫婦琴瑟記 一景ー徐光霽作ー 【配役】 男便……朱紅起 안해……金德顯 아들……金顯童 紅踏會 效果 金顯允 指揮 徐光霽

◇八時三十分 歌曲 一、羽調頭擧 二、羽樂 三、還界樂 四、界樂 五、編 金蘭珠 伴奏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九時 南道俗謠 一、報念 二、새타령 三、六字박이 四、興打鈴 五、개고리打鈴 金南洙 趙素玉

水災에우는同胞에 輻湊하는同情의涙

梨泰院洞民의 三次義捐醵出 朝陽少年軍活動으로

【漢芝里】 시외한지면리태원동민일동은 삼남수재동포를 위하아 두차례나 의연품을내여노앗슴에도 불구하고 요즈음은아츰과저녁으로 제법쌀쌀한 바람이 엄습함으로 그곳구장 김칠준(金七俊)씨는 조양소년군을모지휘하아 제삼차로 의연품을모집하엿는바 의외에도 침원사십칠건과 의류삼십륙점이 거치여서본사한지면지국에긔탁하엿다

松都高普生 義金追加寄託

【開城】 송도 고등 보통학교 생도일동이 전자에 삼남수재의연금으로 사십팔원을 본사개성지국에 긔탁하얏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지난이십구일에는 일원륙십전을 추가 긔탁하엿다

新明講習會員의 衣類金品寄托

【平澤】 삼남지방의수재로인하여 의복과먹을것을 일코설상가상으로 날은 점점치워오게되여 치위와고픈배를 견대지못하고 사선에서 헤매는동포들이 수십만에 달한다는 눈물겨운말을 드른진위군팽성면 객사리신명강습회(振威郡彭城面 客舍里新明講習會)생도들은 어린마음에도 동정의뜨거운 눈물을참지못하여 자긔들이 입엇든의복과 금전을모아 평택지국에 보내여 수해지에보내달라고긔탁하엿다

堂山婦人들醵出 衣類四十一點

【始興】 시외영등포읍당산리(永登浦邑堂山里)부인들은 모다세가 빈한하야 현금은낼수업스나 입엇든옷이나마 한벌식나누어 삼남리재동포에게 보내주겟다는적성으로 의복 사십일점을모아 영사무소를것치어 시흥군청에전하엿든바동군에서는 이것을본사시흥지국으로긔탁하엿다

隣近親知歷訪 誠金모아同情 開城支局에寄託

【開城】 개성부원정(開城府元町)구순모(具淳謨)씨는 삼남수재리재민의 구제금을 동리친지 칠십여명에게서모아 현금이십오원사십전을본사 개성지국에긔탁하엿는데 일반은 구씨의열성에감탄하야마지안는다고한다

興南斥候隊의 災民救濟猛活動 二十二圓모아寄托

【興南】 흥남에잇는 척후대원일동은 남선수재후는 부득이한사정으로 구제금모집에 착수치 못하엿다가 십여일전부터착수하야 대복에호선장을 정제하고 호별방문하야 열심모집한결과 금이십이원삼십전을 거두어본사흥남지국에긔탁하엿다

◇寫眞……興南斥候隊員

鬪牛大會利金을 羅災民에同情

【金海】 경남김해군녹산면송정리(慶南金海郡菉山面松亭里)에서는 유지일동의주최와 본보김해지국 후원하에서 경남투우대회를 예정과일에 개최하엿든바 리익금이십이원 구십오전임으로 이얼마안되는 금액이나마 삼남수해에 말노할 참상을당하고 지금까지로숙생활하는 리재민을 동정하겟다는 동족애에넘치는 아름다운 생각으로본보김해지국에긔탁하야 하로밧비 재지동포에게 전달하여 달라고하엿다

元明學院生 赤誠의同情金 元山支局에寄託

【元山】 원산남산동에잇는원명학원(元明學院)에단이는무산아동들은 삼남리재민에게 전달하야달라고 금일원이십칠전을 수합하야 지난삼십일 본사원산지국에 긔탁하얏는대 빈한한처지에서 수업료까지 낼수업는비참한생활을하는 그들은 수만흔어린동포들의 한고(寒苦)에 떨고잇는 가엽슨경경을 눈압헤그리여보고 참아그저잇슬수 업는 의분이솟아나서 분전을모은것이라는바 비록 적은돈이라할지라도 부자의천금보다 나은거룩한 의연금이라고 안이할수업다

災地!!慶南農村에 立稻差押이雪飛

洪水難에떠는罹災民頭上에 青天霹靂이是何忍斯!

【釜山】 추수를압두고립도차압의 쓰라린통고는 날로증가하야 피땀을흘려자어노흔 일년농사도 하로저녁에 사라저바린다는데 부산지방법원에 쇄도한재무관계로 립도차압의 소송제긔가 이입까지두게 삼십칠건의다수에달하야 금번여름의 대홍수피해도 그대로향을보며 준다하며 지주가 소작인을걸어 립도를 차압한데 대하야이를 불복하는 소작인은 제삼자의 채무관계로 가차압에대한 이의(異議)신청을 한것은 이중상중으로 날로늘어가는 립도차압 사건으로 동법원민사부는 대단이밧분모양이라고한다

임까지출석하엿섯다한다

城津鶴南에서 金剛山探勝 三十日에出發

【鶴南】 천자만홍으로일만이천봉을 물드리고 비폭괴석(飛瀑怪石)과 기암선경(奇巖仙境)으로 오직 조선이가지고잇는 세계공원인 절경의금강산 탐승단을모집중 전부단원이 모집되엿스므로 지난구월삼십일 성진군학남면 일신역장리성규(城津郡鶴南面日新驛長李星奎)씨와 본보학남분국장김창호(金昌浩)씨 인솔하에내외금강과 해금강을탐승하고 도라오리라는데 예정은팔일간이라한다

洪醫師의特志

【原州】 원주읍내 원성의원원장 홍순철(洪淳哲)씨는 금년원주읍내에 개업하엿는데 일반환자에게 친절할뿐만안이라 금번에는 원주일신학원(日新學院)생도일백이십여인을 무료로진찰 하여주고 또한극빈아동에게 는치료비도밧지안코 무료로치료하려고 계획중임으로 동학원에서는 씨의 특지를 감사하야 마지아니한다고한다

染色講習會

【金谷】 양주군진건면(楊州郡眞乾面)에서는 추절이됨으로염색의착용을철저히보급장려할계획을수립하고 지난이십칠일금보교 추긔운동회(金普校秋季運動會)를마친 그잇흔날에 염색의장려(染色衣獎勵)에대한 강습회를개최하엿다한다

公會堂新築에 五百圓을喜捨 劉興山氏美擧

【碧潼】 벽동오북광산(五北鑛山) 류흥산(劉興山)씨는일전에 선천 신성학교 (宣川信聖學校)에 이만원을 긔부한 청년자선가라함은 긔보한바어니와 금번벽동공회당 신축에 오백원을 또긔부하야 일반은 씨의경하를 마지안는다고한다

榮、寧道路開鑿 浮石面直通要望

【榮州】 경북의교통망은거이완성되엿스나 아직 강원도와의 접속이 완성치못하엿든바 지난 초순경에 강원도녕월군수의 출장원이 영주에와서 접속될지역을 시찰하엿다는데 아직은그예정선의 위치가결정되지 못하엿스나 일반군민들의 요망은부석면매기재(浮石面驅峙)통행함이 일반수혜입상편의가다대하겟다하야 당국의결정여하가 매우주목된다고한다

咸南의染病患者 八百二十七名 一月以來九個月間統計

【咸興】 금년일월이래함남도내에서 발생한 각종전염병환자수는 구월이십오일까지 총팔백이십칠명으로 그중장질부사 의사백오십구명이 수위 라고한다

赤痢 一八七名 지부스四五九 파라지부스 七六 痘瘡 一 發疹지부스 一一 猩紅熱 二九 지프테리아 四六 流腦 一八 計八二七

消防組演習

【陰城】 충북음성 소방조에서는 조원들의

獵銃으로아이射傷 詰問者를또毆打

二週日以上治療의重傷 被害者側告訴提起

【英陽】 지난달십륙일에영양군수북면정중리(水北面井中里)에사는유위경장(由衛慶藏)(五五)이란사람이 사냥총을 수선하야 가지고 시사(試射)하다가 동리에사는 수북보교생김재준(金在準)(三)의 바른다리에 류탄(流彈)이 저중하야 이주일이상치료를요할 중상을입혓는데 그의외숙되는 류홍준(劉鴻俊)씨가 가해자 유위를 차저가서 그잘못을힐문하매 유위는도로혀 그런놈은죽어도조타고하면서 류씨와언쟁끄테 충돌이되야 도한류씨에게 이주일이상치료의상처를 입히게되엿다고 한다 그런데 전긔가해자는벌서이십일이상이 지나도록 쌍방의피해자에게대하야 한차례의 방문도업슴으로 피해자측에서는 수일전 가해자유위를걸어 구타죄와 상해죄로 수북면주재소에 고소를제긔하엿는데 일반은가해자유위의 끗까지란폭함을 비난한다고하며 그추이를 주목한다고한다

사실은 입전에 우연히도중에서 김규항을맛나 저당권말소리행을하라고 큰봉변을당하엿스나 어차피당신은 손해를 보는것인즉 나의전도를 위하야 변제증서를하여 도장을찍어주시면 힘써벌어서 몃해안에모다갑하드리겟다고 눈물을흘니면서 간원함으로산전씨는 동정하야 김이가지온변제증서에 도장을찍어 돌려보내

놋코 다시금생각하니 만일김이 거즛행동으로 속이고 이것을맡소한후에 도다시 다른곳에잡혀 먹으면 공모죄로 몰닐것은정한리치라하야 깜작놀나 엇든날영등포경찰서(永登浦署)에게출을하엿슴으로 동서에서는 윤내각대서인과 동긔소등에 조사한결과 과연김은윤내 한창호(韓昌鎬)대서인에게 부탁하야경성모씨에게서 삼천오백원의 저당권 설정을하고 전차금을 바든사실이 판명되여즉시동인을 체포하야엄중한 취조를진행하는중이라는데 전긔 김은지난이십팔일경성어느려관에서 체포되엿다 성모처에 당년이십오세의 산전씨와 친숙하게지내오든중 락선이가 전씨를앙박하고 자긔는 예수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가튼중죄를범하야 큰손해를끼처서 대단 송구하노라고 과거의 잘못을회개하면서 여러가지사과를 함으로 산전씨는 젊은사람의전도가 가긍하야 간곡히위로해 돌려보냇든바 지난이십륙일 또다시산전씨를 차저와서 전에잘못을뉘우치며 형무소에서 나오면 그전날그와가티 포승을밧고 류치장에들어갈것이라고한다

農地令實施…… 各道關係會合

慶南道 【釜山】 경남도에서는 오난이십일부터 실시할농지령시행에관하야 그취지를 널리알리며 철저히할목적으로 도내각군에다음과 가티일정을 정하고 제일일은 읍면장회의 제이일은 지주간담회를 개최 하리라는데 도간부측에서는 손산업부장 송산업과장 산전소작관 달중소작관보이하 사반을분하야 각기당지에 출장하야 회의에참여하기로되엿다고한다

四日=五日東萊 居昌 陜川
八日-九日 統營
六日-七日 蔚山、咸陽、宜寧
六日-七日 固城
八日-九日 梁山、山淸、咸安
十日-十一日 晋州、昌寧
十二日-十三日 河東、密陽
十三日-十四日 泗川
十五日-十六日 南海、昌原
十日-十一日 金海

忠南道 【大田】 충남도에서는 농지령을철저하게운용하야재래의 불량지주를 구치함에 대한타합을 하기위하야 도내각군내무주임과 당업군속삼십명을 도청 제이회의실에 집합한후 이일오전부터 개최한바 안소

全北道 【全州】 압호로닥처는조선농지령실시단행에 관하야 전북도에서는지난이일부터이틀동안 도내부군 내무주임회를 도회의실에서개최하엿다는데동회의개최중에 특히도내각서고등계 주작관(安小作官)으로부터 농지령시행규칙、소작위원회관제、소작위원회규정、조정찬정의표준등에 대하야 철저한설명과극히 힘잇는말이 잇섯다고하며 금번회긔는이일간이라고한다

兩年凶作으로 中興校廢校可慮 住民의太半他處移住와 利子回收不能으로

【安邊】 함남안변군안산면로은리(安山面老隱里)사립중흥학교는대정십이년에인가를어더이래경영하야오는중작금량년에불의의대흉작으로 폐교운명에 이르럿다는바 동교한교장은 다음과가티말한다

校長 韓昌熙氏談 본교의의 보금은 대부분이 농민이 채용하엿는데 당년의흉재로 리자(利子)수입을 할수업슨즉 학교경비를 엇지하겟슴니까 본교동학구역내에 오백여호가 사든것이 금년까지 타처로 이주하면 이백호도채 남지못하겟스니 아동이 업슬것이오 만일아동이 잇다한들 지금추수당철에과아에우는처지로 아무리 배우고십흔니엇지하겟소 운운

基督青少年部主催 少年少女懸賞童話大會 十月十三日밤元山에서

【元山】 원산긔독교청년회소년부주최로 오는 시월십삼일밤 일곱시반부터 제일회 원산소년소녀현상동화대회(懸賞童話大會)를광석동교회당내에서 개최키로되엿다는데 출연연사의 자격은 만십이세로부터 십륙세까지라하며 신입긔일인 시월십일까지에 전긔긔청회관에 연제와 동화의 개요를 첨부신청하여야 된다는바 상은 일 이 삼등으로 논이원고 심판원은 사명사를 방금 교섭중이라는데 원산에서 처음개보는 회합이니만큼 당일의대성황을 예긔할수 잇다는바 어린이들은 이날의호긔를 놋치지말고 이동화대회에 다수참가하기를바란다고한다

寺田辯護士事件 又復新事實發露

【大邱】 류보=경성사전영변호사(寺田榮辯護士)가 모사건의 사긔죄(詐欺罪)로 목하대구지방법원 예심괘(豫審掛)에서 취조를 밧는중 또다시동종류의 범죄가발로되여 사건은 점점확대되여가는중인데 그는 이번선산(善山) 심씨유산사건(沈氏遺産事件)이 잇기전에 대전(大田)모씨 유산 사건의 일만이천원에 관련된 공갈(恐喝)불법체포(不法逮捕)사긔(詐欺)법등의 범죄사실이 드러나서 사건관계자칠명을 비밀리에 인치하고취조하는일방 경긔 충남북 전남북각도에련루자를조사하는일방 물적증거를 포착하야 대구지방법원주정검사(酒井檢事)가다시 대활동을개시한모양인데또다시 전북리리(裡里)에 역시 유산사건의 민사소송에 모종의형사범죄사건이 잇다는것이 발각되여 대전검사국과 협력하야 방금조사중인데 사전변호사의 유산소송을 전문으로한 범죄사실이폭로됨과동시에 또한 불합리한조선 상속법(相續法)을 반증하는것이라하야 적지안흔 주목을집중하고잇다한다

모히中毒撲滅 本格的猛活動

【求禮】 『모히』에중독되여몸망한자가 만키로 전남에둘재가는 구례지방에서는 이『모히』를철저박멸키위하야 백정서장 발의로 전군유지진흥회 구장들을 총망라하여 박멸긔성회를 조직하엿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동긔성회에서는본격적으로맹활동을개시하여 간부들이 날마다중독자의 가가호호를방문하고 정

三菱亞鉛板變色 農倉建築問題化

【大邱】 경북도당국에서는지난번에、각지 농업창고(農業倉庫)의건축에사용코저 삼릉회사(三菱會社)에서아연판(亞鉛板)목만칠천장을구입하얏던바、계약조건보다、품질이불량하야발서부터변질(變質)이되여이상변가되엿다한다、삼릉아연판은남조선각도의농업창고건축재료에 사용한것만치되엿슴으로、문제 전부사용하엿슴으로 이문제가 장차어느정도에까지파급될지의문이라하야 일반은 그해결여하를주목중이라한다

結婚式前日에 詐欺罪로被逮 출옥한지반년도못되여 또다시詐欺든男子

【始興】 전남 령광군 서면류사리(全南靈光郡西面柳沙里)에 본적을둔 김락섭(金樂燮)(二)은 재작년중에 대전(大田)사는 김규항(金圭恒)과 가른 년배인것을긔화로 교묘히 김규항인것

◇運動競技◇

十六日부터 第四回 全平壤 籠球聯盟戰 崇專基督體育部主催 本社平壤支局後援

【平壤】 평양숭실전문학교학생긔독청년회체육부 에서는본사평양지국 후원으로 십륙일부터 숭전체육관(崇專體育館)에서 제사회전평양롱구련맹전을 개최키로 되엿다 참가신청은 십삼일까지 숭전체육부로 보내주면 되겟다 전평양의 롱구단체를가진 각학교 사회체육단체 전부가참가하는만큼 대성황을 예긔할수잇스며더욱이 사계의 기술발전을위해서의 숭전체육부의 노력은 년부년성황과 기술향상에 잇서실로괄목할바잇다한다

本報支局主催 全廣州庭球戰 來十月七日에

【廣州】 명랑한새가을에광주체육계를 장식할 본보광주지국주최의 제이회전광주정구대회(全廣州庭球大會)는드듸여오는 시월칠일에 광주소학교 코-트에서개최키로되엿다 광주정구선수권의대표적패권을결정할금번대회의인긔는 광주정구팬들의관심을 총집중하고잇스며 작년 제일회우승팀인산성(山城)군은 금년에도 련승의패권을 계속하랴하고 산성군에게 석패를당한 경안(京安)군은 금년에는 긔여코설욕하랴는 의긔로써 량군은 필승의 각오를가지고 맹련습중이며 특히금년에는 분원(分院)팀의참가로 더욱 대성황을예긔한다고한다

商工會主催 慶南鬪牛大會 大盛況裡終幕

【馬山】 변동해사요마산외명물인투우대회를상공협회(商工協會)주최로 지난이십오일오전십시부터원정(元町)매축지에서 개최하고련오일동안이나립추의여지가업시 대성황을이루고 이십구일 오후삼시경에 최후결승을다툰바마산명도홍(明道洪)씨사우(飼牛)와창원군내서면리수건(李壽建)씨사우가약삼십분동안이나 최후승부를 다투다가결국 마산명도홍씨의사우가 우승으로 만장의박수와 흥미백파!센트아래에 이날로써 종막을지엇는데 당일의수상자는 다음과 갓다한다

◇甲種 一等(百圓) 馬山明道洪氏 二等(五十圓) 昌原郡內西面李壽建 三等(二十圓) 咸安李南淑 四等(十圓) 昌原上南金昌祿 五等(五圓) 李介同

◇乙種 一等(五十圓) 內西面龜岩鄕泰仲 二等(二十圓) 德山金潤式 三等(十圓) 上南申吉秀 四等(五圓) 龜山金重顯 五等(三圓) 馬山崔在榮

◇寫眞…甲種一等賞을바든明道洪氏飼牛

槐山各青年團 對抗陸上競技 優勝은沙谷軍

【槐山】 충북괴산군내에잇는 삼십오 각청년단대항육상경기대회는 일오일 오전구시 공전의 대성황리에성대하게 개최되엿다 그중에 특히소년단들의 귀엽게날뛰는것은 대회의색채를더한층 빛내이고날이 맛도록 싸운결과 우승의영관은증평면사곡청년단(曾坪面沙谷青年團)에게도라갓다

蔚山脚戲盛況

【蔚山】 경남울산체육협회주최와 본보울산지국후원의 추석노리각희대회는예정과가티 지난이십오일오전십일시부터울산읍중도사장(蔚山邑中島沙場)에서 개최하얏는데 제상일인 결승날에는 전에보기드물만치 관중도만코매우성황을 이룬중 우승상을바든사람은다음과갓다고한다

一等金衆文 二等薛昌度 三等金東煥 四等朴匡鎬 五等孫鳳初

朝滿個人庭球 盛況으로終幕

【義州】 긔보=의주청구동인회주최와 본보와 및동아당지국의 후원아래에 열린조선만주개인정구대회는 예정대로 지난삼십일에 열랴하엿스나 뜻하지아니한비(雨)로인하야그익일인 지난일일 오전구시에 당지도립의원코-트에서 동회회장 김치항(金致恒)씨사회하에개막되여각선수들의 자웅을결하는 백열전의 극성황리에서 오후사시반에 막을닷치엇는바 우승조와 수상한이의씨명은다음과갓다

一等車春燮韓相潤 二等金基滿李春景 三等郭台健方山德 四等金致恒任道淳

◇寫眞=優勝選手와同會幹部一同

光宣幼稚園 園遊會盛況

【長淵】 황해도은률광선유치원(殷栗光宣幼稚園)에서는지난이십사일 오전열한시부터 동유치원 긔자모회 련합주최로원유회를 개최하엿든바 동일오후다섯시까지 사십여종목의 자미잇는경기로 성황리에 맛추엇다고한다

要求拒絶當코 분푸리로放火 警察署에自首

【羅州】 라주경찰서사법계에 지난이십륙일 아츰에 수상한괴한이드러와『내가우리매가에 방화하엿스니 징역보내주오』하고 자수한자가 잇섯는데 전긔자수한사람은 라주군왕곡면에 본적을둔 김길동(金吉童)(三)으로 그의매부되는 군내세지면성산리(城山里)김영건(金永健)에게 생활비 배원을수차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거절을당하고 분개하야 지난구월이십오일밤 여덜시경에 매가의제각에 방화하야반소케하고 즉시그밤으로 라주경찰서에달려와자수한것이라한다

面協議員等十四名 辭職願書提出 惡化되는 雲南公普位置問題

【咸興】 함주군운남면공보교위치가 편재하야운전면(雲田面)의팔천주민들은 자제들을통학식힐수 업다하야공보교의 위치를동면의 가장중앙지대 라고할수잇는호상리(湖上里)에이전하여달라고 루차군당국에 진정하고또한 동면공직자 대회에서 삼십개리구장의 총사직 등으로 목적을 달성하고저 맹렬히활동중이라함은 긔보한바와 갓거니와지난이일양진식(楊鎭植)조운택(曹雲澤)등 십명의 진정원은 군수를 방문하엿는바 마츰부재중임으로 헛되히도라오고 또한동일동면 면협의원 리봉(李鳳)등십사명은 사표를제출하는 일방 지방진흥회위원한철용(韓哲容)등칠명도 사표를제출하야 사태는 더욱험악화할뿐으로 일

靜海門線擴張과 土地坪數割問題 關係住民大擧陳情

【平壤】 평양부에서는도시계획의 한아로 신양리(新陽里)정해문선(靜海門線)의 도로를 대확々하게되여 여긔에 필요한토지를 지주에게 평수할(坪數割)로 부담을 시기게되자 이문제에대하야 정해문선로 일대에거주하는 부민백오십여명의 생활을위협하는 중대문제라 하여 자조할성이 되여와섯고 주민들은 큰차주민대회를열고 선후책을강구중이든바 최후까지 부당국의 무모하기짝이업는 이계획에대하여 최후까지 반대하기로결의하는동시에 다음과가튼 진정서를작성하는일방대표로 ▲劉泳德 ▲金秉瓏 ▲[illegible]崎 初藏 ▲金秉龍 ▲李永漢 등오씨를 선정하고 이일오전관계자전부가 평양부청에 대거쇄도하여 아부(阿部)부윤을 면회하고 주민대회의 결의를 수교하는동시에 충분한진정을하고 최후까지 항쟁할것을 선언하고돌아왓는데 금후의결과는 주목된다고한다

振興會講習

【牙山】 충남아산군의군수이하관계자일동과 각학교、농촌진흥간부삼백여명이 시월삼일부터 사일까지 온양온천공립보통학교내에 집합하야 농촌진흥강습회를 개최한다는데 강사는 총독부촉탁 산긔(山崎)씨 양변풍긔리(豊基里)에잇는청당공조조합(淸堂共助組合)을시찰하되 오후한시부터 강연이잇스리라고한다

桃色作亂말련다고 醉後自家에放火 結局은留置場身勢

【光陽】 전남광양군 조대자(曺大□)(三)는지난이십륙일에장흥경찰서에 방화죄로 인치되여목하엄중한 취조를받고잇다는데 그내용인즉 전기조대자는 수개월전부터 성모(成某)의 처와비밀리에 음란한행동이 계속되여오든중그의 조모되는김소님(金小任)이 이것을 현장에서 발견하고 수차충고를하엿든바 지난이십오일 밤에는 전긔조대자는 일부러술을 마시고 조모와충돌을이르켜 몸에까지한후 석냥으로전정에 불을그어대여 일대소동을이르킨일이 잇섯다하야 그가려인치된것이라한다

讀者優待興行

【金泉】 경북 안동(安東)에잇는 안동극장의 직속극단인 조선소극장은 주간 김일성(金一成)씨 인솔하에 남녀회원배우 사십여명일행은 중앙을거처 호남일대를순회하야 도처에서 대환영을밧엇다는데 지난일일 당지에도착하야 본보김천지국후원하에 본보독자 특별우대흥행을 일일부터 삼일까지 삼일간 당지김천좌에서 상연하여 련일초만원의대성황을일우웟다한다

金剛의丹楓은 十日頃이最好

【高城】 원생고려국하야일견금강산(願生高麗國、一見金剛山)이라는 녯시(詩)를 련상하여 세계인의 발자취는근일사이업시 하루도 수천의탐승객을맛고보내는추풍악(秋楓岳)의가경인 단풍긔는 림박하여 그절호긔가 압호로 몃칠남지아니하엿스나 가장단풍이 일만이천봉(一萬二千峯)을빗나게장식할시긔는금월십일경부터라한다

松の實

秋夕마지災民에 白米三十石分給 羅州許永奎氏義擧

【羅州】 전남 라주읍 토계리 (土界里) 허영규(許永奎)씨는 금번수재로 비참한환경에 빠진리재민을위하야 당초부터 만흔동정이 잇서오든중 명절추석에 먹을것업는 동포를위하야 백미삼십석을 희사하야 부근리재민일백오십호구에 각각 분배해주엇스므로 일반의호평이 자자하다고한다

奬學記念立碑

【碧潼】 사립신명학교(新明學校)는 당지리가은(李□殷)씨의 단독설립으로 이래 이십여성상을두고사개년에공헌이불소하엿는바본교의비운에빠진적도한두번이 안이엿슴으로도이사정을아는지방유지몃사람이 신명학교긔성회를조직하야 긔본금을세우고저 하는동교세화장에몰두하고잇다는데 설립자제씨의 장학열을긔념키위하야 지난이십구일에 수백명군중이모히여 장학긔렴비제막식을 성대하게 거행하엿다한다 설립자제씨는 아래와갓다고한다 리주백(李周柏)녀사 김병관(金炳官) 차두찬(車斗燦) 김래홍(金泰弘)

裁縫講習盛況

【原州】 원주싱거-재봉긔계회사원주분점주최와원주긔독교녀자관、본보원주지국후원으로원주긔독교녀자관내에서본월이십사일부터이십구일까지녀자재봉강습회를개최하엿는데 강사는 경성싱거-중앙점에서파견한조사관씨이엿스며 강습회원이 륙십여인에달하야대성황을이루웟섯다고한다

西湖漁港修築 起工式擧行

【興南】 함남도제이차궁민구제사업으로서 예산 십삼만원으로 서호진(西湖津)어항수축(漁港修築)을계획한다함은이미보도하엿거니와 그간 측량등일반준비가 완성되야 지난이십륙일 함남지사이하관민이백여명참렬하에 긔공식을 성대하거행하엿다

日本內地米凶作 米價繼續狂騰!

韓白米또石五十錢高

二日午後農林省發表=日本內地米 第一回收穫豫想이歸風減收豫想을 控除하면 五千二百三十五萬四千餘石으로 前年實收보다 二割六分의大凶作이엇슴으로 三日前場의 各地期米는

▲大阪=當限三十一圓三十二錢、中限二十九圓四十九錢、先限二十九圓三十八錢으로모다 一日高價에再騰

▲東京=當限三十一圓十五錢 中限二十九圓二十八錢、先限二十九圓十八錢에暴騰되고

▲朝取仁川期米는當限二十八圓七十九錢中限二十六圓六十錢 先限二十六圓七十一錢으로모다 一齊新高價에暴騰되엇다

▲그리고朝鮮內各地期米도昨日高價 近處로다시暴騰되어 群山二十六圓八十七錢 大邱二十六 二十六圓六十錢 木浦二十六圓九十九錢 鎭南浦二十七圓十錢의高價가잇섯다

▲各地正米는昨日氣配混沌은 木浦가三十九日에 比하야一圓貳錢高인외廿九個丁인外에는 京、仁二十八圓六十錢으로前日보다三十錢高、群山十錢高 外는大邱、釜山、鎭南浦는一息不變이엇나

▲京城期摺玄米는 上二十五圓中二十四圓五十錢 下二十四圓으로 各五十錢高이엇고

▲京城正租도 上七錢九厘、中七錢七厘、下七錢五厘로各 三厘 急騰이엇스며

▲京城韓白米는石二十六圓五十錢으로 五十錢高이엇다

別無大影響이나 騰勢는挫折

朝鮮米意外多量으로

日本內地米凶作 豫想發表로 前晝와가티 暴騰되엿슬이어 三日午前十一時四十分農林局으로부터 發表한朝鮮米一回豫想은 一千六百七十萬石으로 前年實收보다 一百餘萬石減收나 平年作보다는 三十餘萬石增의意外好況이엇스나 後場의期米市勢는 別로材料가되지못하고다만騰勢를一段挫折식히는作用만하엿스니 卽

▲朝取仁川期米後場寄付는前場大引에比하야 當限二十八圓四十六錢으로十五丁低 中限二十六圓五十錢으로一丁低、先限二十六圓三十九錢으로二丁低에不過하얏고 二節은 當限五十四錢에更低이나 中限四十三錢 先限三十四錢으로鎭弱이엇다

第一回朝鮮米收穫豫想 一千六百七十萬石

局部的被害이나全體로는良好

比前年百四十萬石減

【三日午前十一時四十分總督府農林局發表】 今年米作은 春期高氣溫으로 苗立이良好하야 移秧當初는 全朝鮮的으로 潤雨가오고 六月의移秧은 豐年이엇든前年에比하드라도 多少進捗되엿다가 七月이되면서 南朝鮮地方은 旱害에 繼續하야 稀有의 風水害가잇섯다 그리고 全朝鮮的으로 陰雲多濕에빠저 氣溫도低下하야 八月下旬의作況은 稍不良이엇다 그런데 그뒤의秋日氣가 比較的良好로 一時憂慮되든病虫害의發生도 局部的에 끄친때문에 作況이相當히恢復되고 作付面積의 增加로 平年과큰大差가업는 收穫이豫想되엇다 卽九月二十四日(秋分日)現在의 收穫豫想高를 調査하면 作付反別은 水稻 百六十七萬三千六百八十二町步 陸稻 三萬八千二百七十五町四反步 合計 百七十一萬一千九百五十七町四反步로 前年보다水稻는 一萬四千二百六十九町九反步增 陸稻는二百二十三町六反步增 合計一萬四千四百九十三町五反步 卽九厘增이다 收穫豫想高는 水稻 千六百四十五萬八千八百六石 陸稻 二十五萬二千四百七十五石 合計 千六百七十一萬一千二百八十一石으로 前年實收高에比하야 水稻 百四十七萬五千四百五十一石 陸稻 五千九百八十八石 合計百四十八萬一千四百三十九石 卽八分一厘의減收이엇다

▲米作付反別及收穫高累年對照 (△減)

年次	作付反別(町) 水稻	陸稻	計	收穫高(石) 水稻	陸稻	計
昭和四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五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六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七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八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九年(豫想)	一、六七三、六八二	三八、二七五	一、七一一、九五七	一六、四五八、八〇六	二五二、四七五	一六、七一一、二八一
對前年增減(△)	一四、二六九	二二三	一四、四九三	△一、四七五、四五一	△五、九八八	△一、四八一、四三九
同上步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米收穫豫想高前年實收高와의比較 (單位石)

道名	昭和九年 水稻	陸稻	計	同八年 水稻	陸稻	計	比較增減 水稻	陸稻	計
京畿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海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江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豫想外數字

그러나正確한報告

……湯村農產課長談

千六百七十一萬石은 多少豫想外이엇다 總督府로서는이때 特히慎重調査하야 職員若干을 地方에派遣하야 正確히報告케한것으로 그數字는 眞實한것으로볼수박게업다 다만第二回豫想과實際와 어드런狀態如何에딸어서多少變動이 생길는지모르나 作況은 全然겨울되고 低濕地의結果 豊收數字가 變動할는지 모르나 現在의狀態대로는 그數字를是認할수박게업다 大減收豫想을 背驅한 主因은 慶南、全南一部에 多少旱害가 잇섯스나天水畓도適期에 移秧되고當局의 努力으로移秧

完了 가要三개된것인그 第一의 原因이다 또雨가 만히든外에 移秧面積이昨年보다 一萬四千町步가增加한것이 그第二의原因이다 그러고第三의 原因은 今年에 比較的施肥하얏스나 低濕의變遷으로 稻熱病이豫想外로 적엇든것이 原因이다

米日爲替市況

【十三日發驅合】 二日의米

米大凶作影響으로 農家損五億餘萬圓

◇……一戶損失百十四圓程度로

日本內地農家不安益深刻化

【東京電話】 今年米作第一回豫想高는 昨年의實收高七千八十萬石에 比하면 二割六分卽一千八百四十七萬三千石의大減收이다. 米價를昨年出廻期同樣 卽政府의買上價格低十三圓三十錢으로보면 昨年에比하야 農家는 四億三千四十二萬圓의 大損失이다 그런데今年의 米價는 政府의大體買上과 凶作豫想으로 數月以來의暴騰을 招來하고잇슴으로 三日의 東京期米先物은 二十九圓十八錢을 唱하고잇서 新米의 價格을 暗示하고 잇스며 今年出廻期는 大體二十八、九圓程度의 米價가안일가觀測됨으로 米價가 그처럼되면昨年보다 減收에對한農家의損失은 五億六千八百三十九萬圓이라는 膨大한 數字가되고 이것을全國農家五百六十萬戶로 除하면 一戶의損失은 百十四圓이되야 農家의 生活不安은 더욱深刻化되리라고 보인다 그러고關西의風水害로 因한被害는豫想以外로甚하야 減收豫想數量은 四百六十七萬二千石인데 이것만을農家의損失이라고보아도 一億三千三百六十一萬圓의多額에 達한다

朝鮮米前途觀

目前은移出이好轉될것가트나 將來는重壓의因이될念慮不無

結局差別好機?

日本內地米는 九州四國中國等地方의旱災 北陸地方의水災 또는東北地方의旱冷으로 勿論豐作은企待치 못하얏섯지만 그래도平年作을推測되든바 近畿地方이未曾有의風災를바든만큼 凶作의소리가놉지안흘수업섯다。農林省發表 九月廿日現在 日本內地米第一回收穫豫想을 보건대 前年보담一割九分五厘減의五千七百二萬六千石으로 다시거긔서風災에依한近畿의減收豫想을減해낸다면 前年보담二割六分減의五千二百三十五萬四千三百石의程度이니 그것은實로 大正二年以來의初記錄으로 大凶作의豫想을意味한다。그와는反對로 各地方의水災로因하야 不作을傳하든朝鮮米는 그以後大體로氣候가順調롭고 脊害이잘되어서 甚한損害를免키에이르럿다。三日總督府農林局發表 그第一回收穫豫想은 一千六百七十一萬一千二百八十一石으로 勿論昨年에比하야서 一百四十八萬餘石의減收로되 그래도最近平年作에比하야는 三十一萬石增의好績을보이는것이다。그러나日本內地米의 大凶作아래 朝鮮米의그만한 好績은 別로큰影響을招致치 못할것이아닌가。그뿐이아니라 이번 日本內地米의大凶作을맛나 二、三年以來 恒常問題되어오든 反朝鮮米의 모든運動도 一時동안下火될것이아닐까。그러나 그것은 한갓短見에지나지못한다。朝鮮米를差別하라든一部로부터는 朝鮮米가

多少

有利해진이機會를 틈타서 自利本位의對策을樹立키에策動할것이 分明하다。이번米穀對策調查會에提出된農林省參考案中移入外地米統制要綱第二에依하면 外地米의移入은政府에서 直接行할것과 그移入數量의決定은日本內地米收穫豫想에 基準할것을 明記하야 그甘呑苦吐의心算을究竟숨기지못하고말앗다。日本內地에잇서 朝鮮米에對하야 甘呑苦吐의對策論이 完全히消滅하지안는以上 朝鮮米는 어느때어떠한法律아래 束縛과抑壓을當할는지 아지못하는運命에노히어잇다。더구나明年은昨年과달러 朝鮮米의立場이比較的好轉될것도事實이요 그만큼反朝鮮米의모든策動에對한 朝鮮內의反對 그中에도農民들의 反感이緩和될것도事實이다。甘呑의現在를가지고苦吐의將來를 防衛키爲하야는 反朝鮮米的 策動을하는데잇서 이機會야말로 絶好의機會라…

米移出激增

粟輸入도續增加

◇……九月中總數量

【總督府發表】 九月中米粟輸移入高는 아래와갓다 (以下單位石)

▲米輸移出	今年	前年
九月中	四三三、六〇八	一三三、六〇八
累計	八、九四八、四〇三	七、八四五、〇六八

▲米輸移入		
九月中	九、三六〇	一六、〇四七
累計	一〇六、二一三	八九、五五六

▲粟輸移入		
九月中	六〇、六九七	三七、三四〇
累計	一、二九〇、三四四	一、〇二二、一五〇

賃銀一部

政府米로支拂

【東京電話】 山崎農相은 凶作對策의一인 救濟土木事業을徹底히하는同時에 그賃銀의一部를 政府所有米로서 支拂로 決定하고 이미極秘裡에 九州地方의 各縣知事間의諒解가되고다시東北地方知事와 交涉할모양이라고한다

株式 採合後에再騰

商況 (三日)

前場保合 昨後場反落인 뒤를 이어今前場은前途觀測의 氣迷人氣로 一息保合이엇스니 卽東新은百三十八圓四十錢에三十錢高、大新八十九圓八十錢에 二十錢高 日產百二十二圓九十錢에不變으로 各大引되고朝新도保合하야三十圓丁、拓新九圓丁이엇섯다

後場更騰 後場은東新百三十九圓五十錢에 一圓十錢高 大新九十一圓八十錢에二圓高、日產百二十三圓五十錢에六十錢高等好勢裡寄後强調趨移이엇다

大勢는押目買

上勢輕視不可

環境一齊良化에不拘코 大勢好轉은尙遠이라하야 軟派는退煎키를실혀하고 戾々를不變함으로 買方의高價警戒와相俟하야 新甫好勢가 一押으로影하얏고 佛僞純重이지만 이미玉整理가 完了되엿市勢는 特히 硬材에銳敏할것이며 取組에係도만가지고보드래도 賣玉만남은터이니 仕手關係로도 上勢가期待되는터이다 特히 復興景氣期待、一層期待等이橫在하얏고 英材인北鐵交涉成立이 好響을줄것으로생각하면 市勢의上壽命이길것이고 賣方의二三次敢敗退와相俟하야 今後는어듸까지던지 押目買가有利하리란말이만타。

一息後再騰?

新規材料期待

日產十五圓、東新十二圓、大新十圓高를演出나서 高價警戒와 利喰으로反落된 市勢는騰勢一巡된대로 今前場은 東新百三十八圓臺、大新八十九圓臺、日產百二十二圓臺에 採合인데이고 氣迷로不進이엇는바 北鐵交涉成立、爲替低、實物好勢、金塊高等의好材는 一擧出來하고 押目에入한모양인데이로써續伸上漸한 新株와 一屈인지 또는戾落具의再惡化의一步인지 强弱兩論이區區하야 材料를기대리는場面이엇스나 大體에잇서 大勢가買便이有利한것갓고 一息後는再騰이豫想되엇섯다

商工界消息

▲洋靴製用덧신發明=市內薰井洞一一五番地大鵬奉氏는 十餘年동안 고무工業에從事하든바 從來의고무덧신의不便한點을改良하야 洋靴製用덧신을考案하야 新案特許까지어더엇다고

▲日鮮纖維同業組合=金永壽는 京城漢江通七番地에 日鮮纖維同業組合을 開業하엿는데 營業種目은 開城人蔘엑키스 染料 石鹼이며 純原料染料를直輸入하야販賣한다고한다

今日財界 (三日)

米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仁川期米先限	二六、四一	二一高
大阪期米先限	二九、三〇	三一高
⑧三等米一石	二八、八〇	一〇高
京城韓白米一石	二六、五〇	五〇高
正租(仁川)(改良) 一斤	七錢七厘	
同 (在米)	七錢五厘	

市中金塊價	一匁賣	一匁買
金	十二圓九〇錢	十二圓七〇錢
銀	二〇錢〇厘	一七錢〇厘

株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朝新	一九、八〇	一〇低
東新	一三八、四〇	三〇高
日產	一二二、九〇	一〇低

商品 (先限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大阪綿絲	二〇八、五〇	一〇〇低
大阪綿花	六〇、五〇	五五低
大阪人絹	八〇、五〇	一五〇低
大阪砂糖	—	—
고무現物(貫)	六錢五	先物六錢五

實物前場取引

賣買高八百六〇枚

▲日本産業 [illegible] ▲同新 [illegible] ▲日本石油 [illegible] ▲機械工作新 [illegible] ▲에라파이 [illegible] ▲에라파이新 [illegible] ▲三菱重工業 [illegible] ▲東洋레온 [illegible] ▲日滿鑛業 [illegible] ▲東拓新 [illegible] ▲東京電力 [illegible] ▲滿洲工業 [illegible] ▲新興人絹 [illegible] ▲鐘紡新 [illegible] ▲帝國人絹 [illegible] ▲東洋紡績 [illegible] ▲大同電力 [illegible] ▲帝國新 [illegible] ▲旭光레온 [illegible] ▲寶來製糖 [illegible] ▲同新 [illegible] ▲日本電力 [illegible]

東京國債市場

【東京電話】 當地市況의 氣迷小戲合으로國債는小利喰으로反落된 市勢는騰勢一巡되대로 今前場은 高保合이오 米貨도爲替軟弱人氣로 落이며 佛貨는二十五錢反六分半一圓三十錢이賣出되엇다

米期 凶作의飛躍後

朝鮮米平作以上이나頑强

前場暴騰 昨後場阪地二十八圓十八錢止와共히二十六圓十九錢에場을止한當市場은今朝에入하야阪地初付二十九圓三十六錢인四十八圓丁奧高를據하고 二十六圓三十九錢인二十丁高로場을始한後 七十一錢에까지暴騰되엇다가 阪地伸悩反落으로四十錢에止場하얏다

後場小弱 後場은二十六圓三十九錢에一丁低로始後四節三十錢에까지少弱이고 五節三十三錢으로새欄가되止場하다

意外好況

朝鮮米一回豫想 後場騰勢挫折

前場은 日本內地米凶作豫想發表로 先附이 二十六圓七十一錢에까지올랏다가四十錢에 止場하얏는데 朝鮮米一回豫想發表가 一千六百七十一萬一千二百八十一石으로 昨年實收보다는一百四十八萬一千四百三十九石의 減收이나 平年作보다는 三十一萬一千餘石增의 意外好況이엇슴에 不拘코 日本內地米凶作에 對한 不安으로 別로作用치못하고 後場寄付는 依히一丁低인二十六圓三十九錢에 終始하얏스며 節三十四錢에 總賣되고 큰影響이업시다만騰勢를一段挫折식히엇슴에不過하엿다

卅年來의大凶

高米價時代到來

日本內地米作第一回豫想은 五千七百二萬六千石으로 從來豫測하든바와는그다지 悲觀할餘地가 업스나그러나 第一回豫想은 九月二十日現在에 依한것으로 其翌日二十一日의關西地方風水害의 減收를豫想하면 五千二百三十五萬四千石으로 昨年度 實收高보다 一千八百十七萬三千二百三十八石 卽二割六分減으로 明治三十八年度實收高三千八百萬石에 다음가는凶作이다. 然而明年度의需給狀態를一考하면 明年度越米의一千六百五十萬石과 朝鮮米의移入高七千五百萬石臺灣米의移入高四千五百萬石을 加算하면 總八千八百萬五千石으로 明年度消費高七千百萬石과 移出豫想高四十萬石 合計七千百四十萬石으로 結局九百四十五萬五千石의剩餘를告하게되다 그러나此는政府의所有米穀全部拂下한것으로採算한것임으로 政府가 萬一大量拂下를 하지안는때는 結局三百五十三萬餘石의供給不足을告하게되다 그럼으로米價의前途는 此邊二十六七圓臺에 止하지아슬것은 足히豫期할수잇다

當限一層頑强

實米化關係로

新穀期米마지하는 當限은中心에 今月末에納會될 絶然한高價를示하고잇다 更하면 當限은 渡米不足으로 二十七圓七十四錢의高價를示한後 이現場은 古米至渡米關連이더욱困難하다할것은事實이오 又는新米로의 渡米蒐集도또한困難할것이다 此理由는新米의出廻가 미처旺盛하지못할 時期일뿐아니라 持米側으로서는明治三十八年以來의 稀有의大凶作임을認하고 米價의前途高를豫期하는關係로 잠시賣惜할것도事實일으로 찰아리當限買의持久戰을繼續하는것이 唯一한方策이아닐가한다

朝取期米取組高

▲當限(賣)[illegible] ▲中限(賣)[illegible] ▲先限(賣)[illegible]

堂島前場硬勢

【大阪電話】 九年度의 需給不安을豫想코煎物이 續出하야更히硬勢이엇다 ▲賣方中東側埔場(利喰) 正米側株式出派、朝鮮側乘替

▲買方場達側(乘替)地場、西山 期外雜貨를移하야 唱는小鈴强含이엇다 ◎三等二八、二〇 四等二七、二〇 一等白米二二、一〇

各地正米

京城昇進 月初로當用必需品은 實需品을進하엿고期米反騰에 移하야 氣配는三十錢昂進이엇다 ⊕三等二八、六〇 四等二八、四五

仁川强騰 定期의騰勢으로도 實氣를刺戟하야 三十錢引締하야 小口商談이잇섯다 ⊕三等二八、六〇 四等二七、二〇

大邱保合 當用으로 相當히買氣가잇섯스나 定期高와相俟하야 賣人氣가 强하고商談不振이잇스며 氣配는昨日과大低保合이엇다 ⊕三等二七、五〇 四等二七、二〇 一等白米二一、〇〇

釜山頑强 出廻三千叺、定期高를移하야 人氣强堅하고月初의積出準備와 當用補充의商談이잇섯고 千七百六十八叺의 賣付이잇서 市勢는頑强保合이엇나 ⊕三等二八、一〇 四等二七、八〇 一等白米三一、四〇

南浦保合 定期高로賣人의引도안되어保合인 ⊕三等二七、七〇 四等二七、五〇 一等白米一〇、七〇

群山强含 昨突風高를演한 直後이라 買方은모다 氣迷傍觀임으로 新規取引이안되고

木浦安定 出廻一千俵、定期 安定에 伴하야 市場人氣도穩 安定되어實需에 切迫하야 當用側도買氣를 發하얏슴으로 小口商取引만잇섯다 갓는二十九日에比하야一圓三十錢騰이엇다 ⊕三等二九、〇〇 四等二八、八〇 一等白米二二、六〇

市場六感

株 今前場은 一息採合 後場은 徹底强러니 ▲熱心强氣論者와가티 市勢를넘허노코 크게만보어大活躍이在近이라고는못하겟스나▲이미玉整理를完了하얏고 가진凝材料에洗禮를바더硬材에 敏感케되엇스며 ▲前途期待되는 好材料가만허 環境이良化되더이니 ▲그間連續的賣込한 者들의突込하얏던反動과市場機構에依한 騰勢가엿술것으로봄이妥當 ▲秋市勢失望은 買方의警戒가김흔만큼 市勢는强健性이잇고 信賴性이잇스니 押目買로進할것으로 작정할가?

米 世界的記錄突破의 颱風이지나간後의 日氣가 依然不翻하야今朝大阪은 降雨朝鮮은 早冷이嫌이不無▲第一回日本內地米作의豫想은五千七百餘萬石으로 發表되엇스나 其實颱風被害의 減收를差引하게되면 五千二百萬石이라고한다▲勿驚! 明治三十八年度의 二千八百萬石보다는 樂觀이라할가? 當時의 物價指數로보아서는 米價가 此邊에止하지 안흘것만은 事實▲그런데今年度의 實收高가五千二百萬石이라할지라도 政府의所有米를 全部拂下하기로 하면 需給維의 問題가 업겟지만은 萬一 政府가 常備米를保管하기 爲하야 大量賣却을갓지안는때는 糧米問題의 大恐慌時代가到來하고야 말모양▲何如間大勢는이로부터 昂騰途程에 入하엿스니 「오시메」買가得策▲前場大引後 朝鮮米一回收穫豫想이發表되엇는데미리짐작튼 수과가티▲二千六百七十萬石으로昨年實收보다는 百四十八萬石의 減收나 平年作보다는三十一萬石의增加▲日本內地米凶作이 큰지라朝鮮米收穫豫想이 平年作보다만흔것은別材가안될모양

市中金價反高

倫敦金塊가 逆訂低이던 京城市中金價는三日은 倫敦市勢가七磅二志二片二分一로 前日보다 八片二分一高이엇고 一匁換算十四圓四十四錢이엇늠으로 結局追隨하야 賣十二圓九十錢、買十二圓七十錢으로各二錢反高이엇나

金銀 白金 分析 賣買

高價買入

京城府茶屋町一四四 京城地金市 電話光化門二五一六番

金融 (三日)

油外國爲替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實入價 [illegible]

米穀 (三日)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格 [illegible]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 (三日)

京城塊糸布市勢 [illegible]

京城綿布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치카코對穀 [illegible]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鰯油冲價 [illegible]

株式 (三日)

新取短期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東京短期東新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米 (三日)

新鮮期米 [illegible]

朝取賣買高 [illegible]

新鮮內各地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商品 (三日)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油外砂糖 [illegible]